

I. 연구개관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사회로의 발돋움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과거 세대가 관념적, 추상적 논리를 중요시하고 유교적 보수주의에 의한 명예, 관습, 제도에 대한 존중에 집착하였던 반면에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정의 실현과 자유정신을 존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구문물의 영향으로 개방적이고 외향적이고 현실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풍조를 띠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간, 지역간, 그룹간, 세대간의 갈등이 많아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가속되어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대의정치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방문화가 진작되는 과정에 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화, 도시화, 국제화로 인해 무역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절대빈곤층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경제안정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늘어나고 기업의 기술축적으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이 크게 신장되는 과정에 있다.

일부 계층에 편향된 부의 편재현상이 서서히 탈피되어 계층간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국민적 결속이 다져져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복지사회가 이루어져 전반적인 국민사회는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고 사회이동성의 증진으로 선진 자본시장 경제형태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우리나라는 전통문화를 재조명하는 분위기에 와 있다. 전통문화와 현대 산업사회의 가치관이 잘 어울리는 여러가지 문화행사와 더불어 고유한 문화를 복구하는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소홀했던 전통문화의 재현운동이 활발히 재현되고 문화사업에서는 사회와 국민의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다원화, 조직화, 복지화 및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젊은 세대가 어떠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시기가 적절하다. 특히, 사회간, 계층간, 지역간, 그룹간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세대간의 갈등은 사회변화의 와중에서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내일의 국가 동량이 될 젊은 세대가 기존의 사회체제를 부정하거나 또는 정치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을 때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성장을 넘어서는 안정과 체제유지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첫째,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의 의식구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으며, 둘째, 청년층의 이러한 의식구조가 어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정치 경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자 했다. 셋째로, 사회의 여러 요소들에 의해 젊은 세대의 의식구조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기성세대가 이들을 위해 내놓은 여러 사회정책들이 어

편 영향을 이들에게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넷째,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들이 청장년들을 어떤 유형의 계층별, 지역별, 그룹별 특성으로 형성시켜 놓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알기 위해 청년들의 사회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룹의 형태를 판별해 보고자 했다. 다섯째, 청년들의 바람직한 의식구조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어떤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여섯째, 이렇게 추출된 자료들에 의해서 청년들의 의식구조가 그룹별, 계층별, 지역별로 되었을 때 이런 요소들이 사회 전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도 알아 보려 했다. 일곱째, 이 조사 연구에서 나온 대안들이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국가목표와 사회목표에 어떤 공헌을 하고 더욱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본 조사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서기 2000년대를 향한 새시대의 주역인 청장년들을 위해 기성인들이 바람직한 노력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러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때 청년들의 의식구조를 알아보고 이들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향해 주어야 하는 효율적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대안을 내놓고자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고 그 개별성을 바탕으로 보편성을 찾아 나가는 매우 포괄적인 높은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달성되고 나타나야 하는가를 이번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평등해야 할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 개인 또는 그룹 사이에 평등해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노력을 어떻게 이루고 사회정의와 형평성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다. 우리사회를 안정시키고 모든 국민이 자주와 자존과 행복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속에서 모든 소외된 계층과 개인들에게 그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가도 이번 연구에서 알아보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기성인들의 노력과 귀감에서 차세대 주역인 우리의 젊은이들은 올바른 사회의식과 국가관념을 확립해 나가리라 믿기 때문이다.

2. 연구내용

본 조사연구는 우리사회의 저변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계층인 18-39세의 청년들이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 연구영역을 청년들의 일반적 가치의식,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 경제현안 등에 관한 인식, 외교 안보 통일관련 문제들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식과 정치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들 의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응답자 개개인의 사회화과정 및 사회적 배경 등도 조사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1) 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년층의 의식 파악, 2) 청년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적 배경 및 사회화 과정 변수에 대한 분석, 3) 바람직한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을 제시 순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이번 연구의 경과 및 내용은 체육부와 체육부 산하 연구기관인 청소년 연구원에서 사단법인 한국민중문화연구소에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연구를 주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연구사업은 1998년 7월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대상은 전국의 청장년(만 18세부터 39세)이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의 비율에 의해 1,500명을 무작위추출하여 85항의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 사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각 지역에서 책임지고 지도하신 교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역 : 현종민(경희대), 박운제(송실대)

협력교수: 구대열(이화여대)

경기, 인천지역 : 백광일(인하대)

협력교수: 이연백(한양대)

대구, 경북, 경남지역 : 이정진(송실대)

협력교수: 손중권(경북대), 손전태(부산대)

광주, 강원, 전남, 전북지역 : 전성연(고려대)

협력교수: 강승규(우석대), 강만철(북포대)
강선보(강릉대), 김영근(연세대)

충남, 충북 : 홍순길(청공대)

협력교수: 이주영(충남대), 하대웅(청주대), 박태현(충남대)

또한 자료를 분석하고 각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집필한 교수는 다음

과 같다.

연구목적과 내용 : 현종민(정치학: 경희대), 박운재(경영학: 숭실대)

연구방법 : 이정진(통계학: 숭실대)

사회가치관 : 이정진(통계학: 숭실대)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 전성연(교육학: 고려대)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 : 전성연(교육학: 고려대)

경제현안에 대한 태도 : 박운재(경영학: 숭실대)

외교, 안보, 통일정책 : 홍순길(정치학: 창공대)

정부에 대한 태도 : 백광일(정치학: 인하대)

민주의식과 정치제도 : 현종민(정치학: 경희대)

연구결과와 정책제안 : 백광일(정치학: 인하대), 현종민(정치학: 경희대)
박운재(경영학: 숭실대)

그리고 위의 모든 교수는 이번 연구자료 분석에 의해 각자가 집필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연구가 3개월의 짧은 기간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각 교수들의 대학원 조교들의 헌신적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한 청년의식의 파악을 위한 조사에 포함된 주요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가치의식

- 개인주의 성향의 심도
- 가족구성원에 대한 태도
- 순결의 중요성
- 학생들의 현실참여 방법
- 결혼조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 투표행동에 대한 독자성
- 기혼여성의 역할 인식
- 여성의 지도성에 대한 인식
- 여성장사에 대한 인식
- 여성권익 대변
-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지위의 평등성
- 불평등 해소 방안

청소년 및 교육문제

-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의 원인
- 교사의 제벌에 대한 인식
- 재수생 발생의 원인
- 재수생 수직 해소 방안
-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개선방안

. 교사에 대한 인식

경제현안에 관한 인식

- . 성장과 분배 관련 의식
- . 노사분규의 책임
- . 외국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 . 선결되어야 할 경제문제
- .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외교, 안보,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 . 주한미군의 필요성
- . 정부의 대북한 정책
- . 정부의 북방정책
- . 통일 후의 체제
- . 남북통일 실현시기에 대한 전망
- . 남북통일의 저해요인
- . 국방력의 유지 수준

정부에 대한 태도

- . 현 정부에 대한 태도
- .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 . 정치지도자의 선택

- .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지지도
- . 현 정부의 당면과제

국민의 민주의식과 정치제도

- . 일반민주이론의 지지도
- . 정당운생중심의 민주정치제도
- . 대의 민주 정치제도
- . 6.29선언에 대한 지지도
- . 민주의식
- . 정치제도에 대한 선호도
- . 6공화국 지지도
- . 지방자치제 실시와 선거방법
- . 3당통합의 지지도
- . 비례사회에 대한 기대
- . 북방정책에 대한 기대
- .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

이상의 의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환경요인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조사에 포함되어, 주요 의식변수에 대한 관계가 분석되었다.

객관적 사회배경

- . 성별
- . 연령
- . 학력

주관적 사회배경

- . 사회계층
- . 정치적 관심도
- . 결혼관

사회화 경험

- . 학교경험
- . 기업경험
- . 접촉매체

- 결혼여부
- 이성관
- 친우관계
- 출생지
- 여가선용
- 사회참여
- 거주지
- 직업
- 종교
- 소득

3. 연구방법

앞에서 간추린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물론, 18-39세의 우리나라 청년 모두를 조사하여 보는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짧은 연구기간에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표본조사 방법을 이용한 모수 추정기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표본설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모집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8-39세의 청년으로 한다.

나. 표집방법:

총화 2단 집락 표집에 의한 호별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는 조사에서 가구를 조사단위로 할 때, 가구의 완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단순 임의 추출을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 조사에서는 적은 예산, 짧은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행정구역을 이용한 시,도 및 동,면의 2단 집락 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표본집락의 편중을 막고, 추정값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층화 2단 추출을 실시하였다.

다.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는 층비례 배정인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n = \frac{N \sum_k N_k P_k (1 - P_k)}{N^2 \left(\frac{d}{Z}\right)^2 \sum_k N_k P_k (1 - P_k)}$$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수, N_k 는 각 층의 수, d 는 허용오차, Z 는 표준 정규분포 변량, P_k 는 각 층의 모비율이다. 6개의 특별시 및 직할시와 8개도를 층으로 하여 허용오차를 2.5%로 하였을 때 95%의 신뢰도를 갖기 위한 n 은 대략 1,500이다. 2단 집락 추출시 표본의 최적 배정을 위한 비용함수는 일반적으로

$$C = C_0 + n_k C_1 + m_k m_k C_2$$

이다. 여기서 C_0 는 고정비용이고, C_1 은 1단계 표본 하나를 추출하기 위한 비용이고, C_2 는 2단계 표본 하나를 추출하기 위한 비용, n_k 는 1단계 표본 추출단위의 수, m_k 는 2단계 표본추출 단위의 수이다. 표본의 최적 배정공식

$$m_k = \frac{S_{wk}}{S_{bk}} \sqrt{\frac{C_1}{C_2}}$$

를 이용한 본 연구의 최적 m_k 는 대략 10이다. 즉, 150개의 2차 추출단위가 필요하다.

라. 표집절차

1) 6개의 특별시 및 직할시와 8개 도를 층으로 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각 층별집락의 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37) 부산(13) 대구(8) 인천(6) 광주(4) 대전(5) 경기(19)
 강원(7) 충북(5) 충남(6) 전북(8) 전남(8) 경북(11) 경남(13)
 계 : 150 개

2) 특별시, 직할시와 도의 시에서는 동을, 도의 군에서는 읍·면을 각 층별 집락의 수만큼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동과 읍·면의 리스트는 부록에 있다.

3) 이들 표본 동·면에서 주민등록부를 열람하여 18-39세의 청년이 있는 1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원이 직접 호별방문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동·면에서 2단계 표본 추출시 성 및 연령에 근거한 할당 표집을 하였다. 성의 경우,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여성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6:4로 하였다.

마. 표집 경과

본 연구는 7월 한달간의 예비조사 및 질문서 작성기간을 거쳐, 8월 1일에서 8월 14일까지 협력대학의 대학생들을 면접조사원으로 고용하여 교육시킨후 2주간 집중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SPSS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보니 저학력 노무자 그룹이 조사에서 많이 빠진 것이 발견되고, 잘못된 자료도 상당수가 되어 전체 유효 응답자 수가 1428명이었

다. 그래서 9월 1일에서 5일까지 안산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전국각지에서 연수를 받으러 온 저학력 노부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보조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수집된 표본의 수는 1494개 이다.

바. 응답자의 주요 특성

청년 의식구조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이번 표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간추려 소개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응답자를 각 속성별로 수많은 분류 표를 작성하였으나 여기서는 중요한 속성만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인구학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층화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표 I-3-1>에서 보는 지역별 표본의 비는 각 지역별 실제 인구비와 유사하다. 남성의 사회활동을 중시하여 남.여비를 6:4로 할당표집을 한 것도 원래의 의도대로 59% : 41%가 표집되었다. 나이별로는 18-25세 47.1%, 26-33세 35.8%, 34-39세 17.0%로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많이 표집되었다. 이는 아마도 대학생들을 조사원으로 고용하였기 때문에 조사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을 응답자로 선택한 결과라 짐작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33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의 의식구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I-3-1〉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계	성 별		연 령			결혼여부		
		남	여	18-25	26-33	34-39	미혼	결혼	기타
서울 1	366 (24.5)	209 (57.1)	157 (42.9)	172 (47.0)	133 (36.3)	61 (16.7)	238 (65.0)	127 (34.7)	1 (.3)
부산 2	128 (8.6)	61 (47.7)	67 (52.3)	73 (57.0)	32 (25.0)	23 (18.0)	84 (65.6)	44 (34.4)	
대구 3	85 (5.7)	54 (63.5)	31 (36.5)	43 (50.6)	26 (30.6)	16 (18.8)	52 (61.2)	33 (38.8)	
인천 4	51 (3.4)	26 (51.0)	25 (49.0)	25 (49.0)	16 (31.4)	8 (15.7)	31 (60.8)	19 (37.3)	
광주 5	39 (2.6)	26 (66.7)	12 (30.8)	21 (53.8)	15 (38.5)	3 (7.7)	28 (71.8)	10 (25.6)	1 (2.6)
대전 6	47 (3.1)	26 (55.3)	21 (44.7)	30 (63.8)	15 (31.9)	2 (4.3)	35 (74.5)	12 (25.5)	
경기 7	196 (13.1)	123 (62.8)	72 (36.7)	93 (47.4)	78 (39.8)	25 (12.8)	114 (58.2)	79 (40.3)	2 (1.0)
강원 8	70 (4.7)	42 (60.0)	28 (40.0)	31 (44.3)	24 (34.3)	15 (21.4)	39 (55.7)	31 (44.3)	
충북 9	52 (3.5)	30 (57.7)	21 (40.4)	23 (44.2)	18 (34.6)	11 (21.2)	32 (61.5)	20 (38.5)	
충남 10	62 (4.1)	34 (54.8)	28 (45.2)	28 (45.2)	15 (24.2)	19 (30.6)	32 (51.6)	29 (46.8)	
전북 11	80 (5.4)	53 (66.3)	27 (33.8)	26 (32.5)	34 (42.5)	20 (25.0)	38 (47.5)	42 (52.5)	
전남 12	78 (5.2)	50 (64.1)	28 (35.9)	44 (56.4)	21 (26.9)	13 (16.7)	46 (59.0)	30 (38.5)	2 (2.6)
경북 13	111 (7.4)	62 (55.9)	49 (44.1)	37 (33.3)	51 (45.9)	23 (20.7)	54 (48.6)	57 (51.4)	
경남 14	129 (8.6)	85 (65.9)	44 (34.1)	57 (44.2)	57 (44.2)	15 (11.6)	81 (62.8)	48 (37.2)	
계	1494명 (100.0%)	881 (59.0%)	610 (40.8%)	703 (47.1%)	535 (35.8%)	254 (17.0%)	904 (60.5%)	581 (38.9%)	6 (.4%)

* 무응답자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각 속성별 계는 1494가 아닐 수도 있음

성별	계	연령			결혼여부		
		18-25	26-33	34-39	미혼	결혼	기타
남	881 (59.0)	381 (43.2)	354 (40.2)	146 (14.6)	561 (63.7)	311 (35.3)	6 (.7)
여	610 (40.8)	320 (52.5)	181 (29.7)	107 (17.5)	341 (55.9)	269 (44.1)	
계	1491명 (100.0%)	703 (47.1%)	535 (35.8%)	254 (17.0%)	904 (60.5%)	581 (38.9%)	6 (.4%)

〈표 I-3-2〉는 응답자의 현 거주지와 출생지를 비교한 것으로 자기 출생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 경기, 강원이 90.4%, 충청도가 57.1%, 대구, 경북이 69.5%, 부산, 경남이 69.5%, 전라도가 67.1%이다. 즉, 충청도와 전라도 사람이 고향을 떠나 서울, 경기 지방에서 많이 사는 것이 눈에 띈다.

〈표 I-3-2〉 응답자의 거주지와 출생지의 비교

	계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북	무응답
경기, 강원	683 (45.7%)	444 (90.4)	78 (39.4)	44 (18.6)	31 (11.1)	82 (29.3)	4 (.6)
대전, 충남, 북	161 (10.8%)	22 (4.5)	113 (57.1)	10 (4.2)	9 (3.2)	6 (2.1)	1 (.6)
대구, 경북	196 (13.1%)	9 (1.8)	1 (.5)	164 (69.5)	17 (6.1)	3 (1.1)	2 (1.0)
부산, 경남	257 (17.2%)	13 (2.6)	4 (2.0)	15 (6.4)	222 (79.3)	1 (.4)	2 (.8)
광주, 전남, 북	197 (13.2%)	3 (.6)	2 (1.0)	3 (1.3)	1 (.4)	188 (67.1)	
계	1494명 (100.0%)	491 (32.9%)	198 (13.3%)	236 (15.8%)	280 (18.7%)	280 (18.7%)	9 (.6%)

나) 사회적 배경

응답자의 학력은 < 표 I-3-3 > 과 같이 중학이하가 8.7%, 고등학교 학력이 41.6%, 대학재학 이상이 49.0%로 대학 이상이 많이 표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결과해석에 있어 대학재학이상 학력의 의견이 많

이 반영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종교별로는 무종교가 41.4%, 기독교가 26.8%, 카톨릭 8.7%, 불교 18.8%를 보여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많고 기독교 신자가 불교신자보다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직업은 <표 I-3-4>와 같다. 각 직업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대학생이 제일 많음을 볼 수 있다.

<표 I-3-3> 응답자의 사회적 배경

계	학 령				종교				
	중학 이하	고교 학력	대학제학 이상		무교	불교	기독교	카톨릭	기타
남	881 (59.0)	64 (7.3)	358 (40.6)	452 (51.3)	400 (45.4)	150 (17.0)	217 (24.6)	68 (7.7)	36 (4.1)
여	610 (40.8)	66 (10.8)	262 (43.0)	279 (45.7)	217 (35.6)	131 (21.5)	182 (29.8)	62 (10.2)	17 (2.8)
계	1491명 (100.0%)	130 (8.7%)	622 (41.6%)	732 (49.0%)	618 (41.4%)	281 (18.8%)	401 (26.8%)	130 (8.7%)	53 (3.5%)

〈표 I-3-4〉 응답자의 직업

직업	응답자 수	백분율
회사원	241	16.1
공무원	51	3.4
교사 및 강사	35	2.3
고등학생	70	4.7
재수생	21	1.4
대학생	306	20.5
대학원생	10	.7
군인(사병)	21	1.4
군인(장교)	3	.2
주부	138	9.2
자영사업	191	12.8
전문직	23	1.5
근로자	86	5.8
농업·축산업	101	6.8
무직	63	4.2
무응답	134	9.0
계	1494 명	100.0 %

3) 경제적 배경

응답자의 가계 월 총수입은 < 표 I-3-5 > 와 같다. 3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16.4%나 되고 30-70만원이 48.2%로 제일 많고 70-100만원이 16.9%, 100만원 이상이 12.2%가 된다.

< 표 I-3-5 > 응답자의 경제적 배경

월 수입	응답자 수	백분율
30만원 이하	245	16.4
30-70만원	721	48.2
70-100만원	253	16.9
100만원 이상	183	12.2
무응답	92	6.2
계	1494 명	100.0 %

II. 주요 의식 조사 분석

2천년대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주역은 바로 오늘의 20대와 30대들이다. 이 청년들의 어깨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들의 현재 의식구조는 어떠할까?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의식구조를 사회가치관, 여성문제, 교육문제, 경제현안, 외교.안보.통일 정책, 정부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식과 정치제도로 나누어 심층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를 이용하여 수천개의 분류분석표를 만들었으나 한정된 지면상 여기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류 분석표만 설명한 후 보여주고 특수한 경우에 분석표 없이 설명만 하였다.

1. 사회 가치관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서구의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어,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구조도 많이 변화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의식구조가 얼마 만큼 서구의식화되었는지 개인주의 성향, 가부장의 역할, 순결관, 결혼관, 여가선용, 약물문제 등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여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개인주의 경향

‘식당에 갔을때 각자 돈을 내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에 대해 찬성이 61.3%, 반대가 25.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대, 30대, 결혼유무, 종교에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이를 남, 여별로 보면 남자는 찬성 56.6%, 여자는 찬성68.3%로 여자가 높고, 또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이상(찬성 63.4%)이 고교학력 이하(찬성 59.4%), 중졸 이하(58.1%) 보다 약간 더 찬성률이 높다.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자에게 더 개인주의 경향이 많음을 보여준다. 직업별로는 학교선생(찬성 71.4%), 의사, 약사 등 전문직(찬성 78.3%)종사자들의 찬성률이 기타 직업보다 훨씬 높다.

〈표II-1-1〉 개인주의 성향

“식당에 갔을 때 각자 돈을 내는 것이 좋다.”

계	성 별		학 력			
	남	여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제이상	
찬 성	61.3	56.6	68.3	58.1	59.4	63.4
중 립	13.4	14.2	12.2	19.4	12.7	12.8
반 대	25.3	29.2	19.5	22.5	27.9	23.8
계	100.0% (1489)	100.0% (880)	100.0% (609)	100.0% (129)	100.0% (621)	100.0% (732)

나. 가부장 역할의 약화

‘부모의 의견이 다를때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찬성이 32.3%, 반대가 40.8%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남자(찬성 37.8%)와 여자(찬성 24.5%)의 시각이 이 문제에 관련한 현격하게 다르다.

나이별로 보면 25세 이하(찬성 26.1%)가 26-30세(찬성 37.2%), 34-39세(찬성 40.2%) 그룹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또 미혼자(찬성 28.6%)가 기혼자(찬성 38.6%)보다 남자의 가부장 역할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에 더 두드러진다.

<표Ⅱ-1-2> 아버지의 가부장 역할

“부모의 의견이 다를 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

	계	성 별		혼인여부		나 이		
		남	여	미혼	결혼	18-25	26-33	34-39
찬성	32.4	37.8	24.5	28.6	38.6	26.1	37.2	40.2
중립	26.8	28.1	25.0	28.1	24.3	28.1	26.0	25.2
반대	40.8	34.1	50.5	43.3	37.1	45.8	36.8	34.6
계(%)	100.0 (1489)	100.0 (880)	100.0 (609)	100.0 (903)	100.0 (581)	100.0 (702)	100.0 (535)	100.0 (254)

다. 보수적인 순결관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찬성 65.5%, 반대 17.3%를 보이고 있다. 남,여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25세 미만(찬성 60.2%), 26-33세(찬성 67.0%), 34-39세(찬성 77.6%)로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적이다. 기혼자(찬성 72.9%)가 미혼자(찬성 68.6%)보다 보수적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다. (중졸이하 (찬성 71.5%), 고교학력(찬성 68.6%), 대학재학이상(찬성 61.9%)), 직업별로는 농.어민 (찬성 81.0%), 주부(찬성 76.1%)가 보수적이고 재수생(찬성 52.4%), 군인(찬성37.5%)이 개방적이다.

<표II-1-3> 여자에 대한 순결관

“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

	성 별			혼인여부		나 이			학 력		
	계	남	여	미혼	결혼	18-25	26-33	34-39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학재학이상
찬성	65.5	66.0	64.7	60.6	72.9	60.2	67.0	77.6	71.5	68.6	61.9
중립	17.2	18.1	16.1	19.7	13.5	19.8	16.9	10.6	11.5	15.6	19.4
반대	17.3	15.9	19.2	19.7	13.6	20.0	16.1	11.8	16.9	15.8	18.7
계(%)	100.0 (1489)	100.0 (880)	100.0 (609)	100.0 (903)	100.0 (581)	100.0 (702)	100.0 (535)	100.0 (254)	100.0 (130)	100.0 (620)	100.0 (732)

반대로 ‘남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견해에는 찬성 51.3%, 반대 24.2%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남자들은 찬성 44.2%, 반대 28%를, 여자는 찬성 61%, 반대 18%를 보이고 있어 청년층에도 아직 남자들의 순결에

관한 이기적인 생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4-39세(찬성 63.6%) 연령층이 18-25세(찬성 48.6%), 26-33 세(찬성 49.2%) 연령층보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젊은 연령층이 퇴폐문화에 만연되어 있지 않나 우려된다. 대학재학 이상(찬성 49.1%)이 중졸이하(찬성 62.3%)보다 낮은 찬성률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의미가 심각하다. 배운 사람이 오히려 더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는가?

〈표II-1-4〉 남자에 대한 순결관

“ 남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

	성 별			혼인여부		나 이			학 력		
	계	남	여	미혼	결혼	18-25	26-33	34-39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학재학이상
찬성	51.3	44.2	61.5	47.5	56.9	48.6	49.2	63.6	62.3	51.8	49.1
중립	24.5	27.7	19.8	26.5	21.3	26.5	25.0	17.4	13.1	23.5	27.2
반대	24.2	28.1	18.7	26.0	21.8	24.9	25.9	19.0	24.6	24.7	23.7
계(%)	100.0 (1487)	100.0 (877)	100.0 (610)	100.0 (903)	100.0 (578)	100.0 (702)	100.0 (533)	100.0 (253)	100.0 (130)	100.0 (620)	100.0 (731)

라. 건전한 결혼관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은 압도적으로 인품,성격(74.2%) 을 꼽았고, 경제력(9.1%), 용모(5.8%)를 선택한 사람은 일부였다. 나이에 상관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다만 저학력자(중졸 이하)는 인품(55%), 경제력(19%)을 나타내었다. 저학력자가 대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또 남자는 인품(75.9%), 경제력(7.4%), 용모(6.8%) 순으로 꼽았고 여자는 인품(71.8%), 경제력(11.5%), 용모(4.4%)로 순위는 같으나 남자보다 조금 더 경제력을 중시하고 용모는 덜 따진다.

〈표II-1-5〉 결혼조건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은?"

	계	성 별		학 력		
		남	여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학재학 이상
경제력	9.1	7.4	11.5	19.4	9.0	7.4
학력	1.7	1.1	2.5	3.9	1.4	1.5
인품(성격)	74.2	75.9	71.8	55.0	73.3	78.4
용모(건강)	5.8	6.8	4.4	9.3	8.2	3.4
종교	2.2	2.1	2.5	4.7	1.0	2.9
가문	2.9	2.2	3.9	5.4	3.9	1.6
기타	4.1	4.6	3.4	2.3	3.2	4.8
계(%)	100.0 (1486)	100.0 (878)	100.0 (610)	100.0 (129)	100.0 (621)	100.0 (731)

마. 학생들의 현실참여 지지

학생들의 시위나 기타 집단적 방법으로 현실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 49.3%, 반대 34.1%를 보여 청년층의 지지율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남.여로는 비슷한 지지를 보이지만, 나이별로는 18-25세(찬성 56.0%), 26-33세(찬성 47.5%), 34-39세(찬성 34.4%)로 청년층도 나이가 들수록 학생운동에 비판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중졸이하(찬성 40.6%)와 대학재학이상(찬성 56.1%)이 학생들의 현실참여를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II-1-6〉 학생들의 현실참여에 대한 시각

” 학생들의 현실참여는 바람직한 일이다. ”

	계	나 이			학 력		
		18-25	26-33	34-39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학재학이상
찬 성	49.3	56.0	47.5	34.4	40.6	42.9	56.1
중립	16.6	18.7	14.4	15.4	14.1	17.8	15.4
반 대	34.1	25.4	38.1	50.0	45.3	39.2	28.4
계	100.0% (1490)	100.0% (702)	100.0% (535)	100.0% (253)	100.0% (128)	100.0% (622)	100.0% (732)

바. 체육활동을 이용한 여가선용

여가선용 방법중 청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운동하기, 운동관람, 등산, 낚시 등 체육과 관계되는 것이 44.0%나 되었고 영화, 연극, 음악 등 예술과 관계된 것은 23.6%, 독서 12%, 라디오, T.V.시청 6.9%를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 등산, 낚시(30.3%), 운동하기, 관람(24.9%), 독서(7.6%) 순서로 체육활동이 55.2%나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영화, 연극, 음악감상(34.1%), 등산, 낚시(18.8%), 독서(18.3%), 라디오, T.V.시청(9.4%), 운동하기, 관람(9.4%) 등 예술과 문학에 남자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별로는 25세 이하가 영화, 연극, 음악감상(32.2%)을 제일 선호한 것이 특기할 만하고 26-33세는 등산, 낚시(30.2%), 34-39세는 등산, 낚시(27.2%)을 제일 선호하였다. 학력별로는 등산, 낚시 다음으로 중졸이하가 등산, 낚시(27.5%), T.V., 라디오시청(16%)을 많이 하고 고교학력이 등산, 낚시(27.7%), 연극, 영화, 음악감상(23.3%), 대졸이상이 영화, 연극, 음악감상(25.3%), 등산, 낚시(23.7%)를 제일 선호하였다.

〈표Ⅱ-1-7〉 여가선용 방법

" 제일 선호하는 여가선용 방법은? "

	계	성 별		나 이			학 력		
		남	여	18-25	26-33	34-39	중졸 이하	고교 학력	대학 제학이상
운동하기	18.5	24.9	9.4	17.0	21.0	17.6	14.2	18.5	19.3
(운동관람)									
등산, 낚시	25.5	30.3	18.8	21.7	30.2	27.2	27.5	27.7	23.7
연극, 영화,	23.6	16.5	34.1	32.2	17.6	12.4	13.4	23.3	25.3
음악 감상									
독서	12.0	7.6	18.3	13.2	10.5	12.0	12.6	9.7	13.8
라디오,	6.9	5.1	9.4	4.3	7.3	12.8	16.5	7.3	4.8
T.V. 시청									
장기, 바둑	2.8	4.2	0.8	1.6	3.9	4.0	0.8	3.4	2.7
기타	10.7	11.4	9.2	10.0	9.5	14.0	15.0	10.6	10.4
계(%)	100.0 (1483)	100.0 (876)	100.0 (607)	100.0 (699)	100.0 (534)	100.0 (250)	100.0 (127)	100.0 (617)	100.0 (731)

사. 약물문제

‘약물(히로뽀, 대마초, 본드, 기타)을 사용하여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2%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중 남자는 6.4%, 여자는 1.2%로 남자가 훨씬 많고, 연령별로는 18-25세(5.8%), 26-33세(3.4%), 34-39세(1.6%)로 청년들에 약물 복용이 더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이하(5.3%)가 대학이상(3.3%)보다 복용 경험이 많고, 부유층(9.2%), 중산층(2.3%), 저소득층(5.8%)으로 부유층 청년들의 약물 복용 경험이 많음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사회의 부유층에 퇴폐주의가 만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복용했던 마약물은 대마초(42%), 본드(25%), 히로뽕(8%), 각성제(8%), 기타(17%) 순이다.

〈표II-1-8〉 약물복용

"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나? "

	성 별			나 이			경 제 력			학 력		
	계	남	여	18-25	26-33	34-39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재이상
유경험	4.2	6.4	1.2	5.8	3.4	1.6	9.2	2.3	5.8	5.4	5.2	3.3
무경험	95.8	93.6	98.8	94.2	96.6	98.4	90.8	97.7	94.2	94.6	94.8	9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85)	(877)	(608)	(700)	(532)	(253)	(131)	(787)	(567)	(129)	(619)	(730)

〈표Ⅱ-1-9〉 복용약물의 종류

“ 약물을 복용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복용했나? ”

종 류	응답자 수	백분율(%)
히로뽕	4	7.7
대마초	22	42.3
본드	13	25.0
각성제	4	7.7
기타	9	17.3
계	52명	100.0%

요약 및 결론

2천년대의 한국을 이끌어 갈 주역인 청년들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흥, 퇴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들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가시적으로 하여야 될 두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가. 도덕사회의 구현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미래의 고소득 복지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전한 사고방식의 함

양을 통한 도덕 사회의 건설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또 현 기성세대가 후세를 위해 지향해야될 바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또 우리가 피부에 느끼듯이 청년들 사이에도 서구의 퇴폐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만연되어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퇴폐문화 추방 및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은, 또는 강조하고 있지 않은 두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1) 유치원 교육강화

— 어린 아이의 ‘휴지버리지 마세요’는 경범죄 처벌법의 몇배의 효과
요사이 우리 국민의 민주질서 의식이 낮아 정부에서도 법률을 강화하여 올바른 질서의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정책은 과거에도 경험하였듯이 잠시동안만 반짝하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5살부터 취학전까지의 아동들에게 올바른 민주 질서 의식을 조기교육하여야 한다. 이는 인간의 가치 판단이 4-5세에 거의 다 세워진다는 아동심리학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유치원을 의무교육 또는 기존 유치원을 재정 지원하여 전아동들이 모두 조금의 학비만 내고 교육을 하는 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자기 부모 친척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예를 들어 ‘아버지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는 경범죄 처벌법보다 몇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최근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 또 달동네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낮시간에 국가가 맡아 교육시킴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또한 늘어나는 교육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 올바른 민주 질서 의식을 갖는 미래의 시민을 키워낸다.

2) 과소비 추방

— 과소비의 주범은 공짜돈이다.

과소비가 우리가 그리는 도덕사회에 병적인 존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돈 안들이고 저녁먹고 술마시고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 또 하루 아침에 때 돈을 버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만일에 자기 돈으로, 또는 열심히 벌은 돈으로는 절대 과소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의 결집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공무원 봉급의 대폭인상(대기업 이상)으로 대졸 학력 이상의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후
- 공직자 비리의 처벌 강화
- 기업접대비의 손비처리 축소 및 폐지
- 금융실명제 및 토지공개념제도의 조속 실시

나. 청년 체육활동의 강력 지원

— 골프장 설립시 반드시 청년들을 위한 대중체육시설을 세우도록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과 같이 청년들의 튼튼한 신체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로 약속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들의 여가선용에 체육활동이 단연 높다. 올림픽 때문에 많은 체육시설이 건설되었으나 일반 청년들은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가진 자들의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현재 엄청나게 건설되고 있고, 그 차지하는 공간, 설립비용, 공해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불평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는 골프장 인가 시 가진자들의 사회 공익 사업으로 청년들을 위한 대중체육시설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면 빈부의 위화감도 해소될 수 있고, 미래의 주인인 청년들을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2.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가. 투표행동에 대한 독자성

투표행동이란 바로 '민주주의라는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행동'으로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된다. 민주주의란 바로 투표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Ⅱ-2-1〉 투표행위에 대한 독자성 *

	응답자 수	백분율
찬성	140	9.4
반대	1256	84.7
기타	88	5.9
계	1494명	100.0%

* "남편과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부인은 독자적으로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남편과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부인은 독자적으로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하여 찬성이 9.4%, 반대가 84.7%로서 대체로 응답자들은 남녀평등의 민주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1494명의 응답자 중 140명(9.4%)만이 여필종부의 보수적인 투표행

중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을 연령구분에 따라 분석해 보면 젊은 연령층(6.3%)보다는 청장년층(15.7%)이 훨씬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보수적인 경향은 응답자의 학력 구분에 따라서도 두드러진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남녀평등적인 투표행동을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국민학교, 중학교 졸업자가 16.9% 찬성하고 66.2%가 반대한 반면, 대학재학 이상은 6.1%만이 찬성하였고 91.5%가 반대하였다.

그외에 가계수입이 낮고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성이며 결혼한 사람일수록 더욱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응답자들은 적어도 투표행위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일치되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기혼여성에 대한 역할 인식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성역할 편견을 나타낸 진술문에 대하여 찬성이 20.8%, 반대가 69.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젊은 세대는 ‘여성은 가정만을!’이라는 성편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Ⅱ-2-2〉 기혼여성에 대한 역할 인식*

	응답자 수	백분율
찬성	311	20.8
반대	1039	69.5
기타	144	9.7
계	1494명	100.0%

*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은 양립할 수 없다."

위의 진술문에 대하여 찬성한 보수적 성향의 반응자 311명을 연령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욱 보수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즉 18-25세 집단에서는 14.4%만이 보수반응을 택했으나(즉, 찬성) 34-39세 집단에서는 30.3%가 그러한 반응을 택했다. 남녀 구분에 따라서는 남자가,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미혼자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학력구분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자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즉, 국민학교, 중학교 졸업자는 위의 진술문에 대하여 33.8%가 찬성하고 53.1%가 반대한 반면, 대학재학 이상자는 15.6%만이 찬성을, 그리고 76.9%가 반대를 하였다. 그리고 대도시나 중·소도시지역 거주자보다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더욱 보수적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기혼여성에 대한 역할인식에 있어서의 성편견은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으나(21%) 분명히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점차 그러한 편견은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여성의 지도성에 대한 인식

〈표II-2-3〉 여성의 지도성에 대한 인식 *

	응답자 수	백분율
찬성	527	35.3
반대	769	51.5
기타	198	13.3
계	1494명	100.0%

* " 여성은 남성보다 지도력이 부족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지도력이 부족하다’라는 진술문에 대하여 35.3%가 찬성의 입장을, 51.5%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13%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여성지도력에 대하여 성편견 없이 공평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과반수이긴 하지만,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도 1/3이나 된다. 이들 부정적인 응답자(527명)들은 연령별로

볼때에 18-25세의 연령층(26%)보다는 26-39세 연령층의 응답자들이 더욱 여성지도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43.6~43.7 %) 성별로 볼때에는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18.2%)보다는 남성(47.2%)이 더욱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고, 학력구분이나 지역구분, 경제수준 등에 따라서는 뚜렷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조사의 응답결과로 보나 정치, 사회 제분야에서의 여성지도자들의 위상으로 보나 현재로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지도력이 크거나 동등하다'라는 결론은 당분간 유보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여성상사에 대한 인식

〈표Ⅱ-2-4〉 여성 상사에 대한 인식*

	응답자 수	백분율
찬성	651	43.6
반대	490	32.8
기타	353	23.6
계	1494명	100.0%

* "직장에서 상사가 여성이라도 모든 면에서 불편하지 않다."

‘직장에서 상사가 여성이라도 모든 면에서 불편하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한 응답자는 651명으로 43.6%, 반대한 응답자는 490명(32.8%)이었다. ‘잘모르겠다’로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도 353명으로 23.6%에 달했다. 여성의 지도력에 대한 막연한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 정답을 고르듯이 편견이 없는 태도를 취하다가도 막상 ‘당신의 상관이 여성일때’를 상정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을 때에는 의견개진을 유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구분, 학력구분, 지역구분, 경제수준 등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구분에 따라서는 남성이 40.5%로, 여성(21.5%)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여성지도성’에 관한 것과 ‘여성상사’에 대한 응답결과를 함께 고찰할 때에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상당한 성편견이 도사리고 있으며, 결국, 산업 현대화와 정치 민주화의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와같은 보수성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바. 여성권익 대변에 대한 의견

‘남성 정치가가 여성권익을 더 잘 대변하기는 어렵다’라는 진술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69명(51.5%)은 찬성을, 401명(26.8%)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324명(21.7%)는 ‘잘 모르겠다’고 의견제시를 유보하고 있다.

〈표Ⅲ-2-5〉 여성권익 대변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수	백분율
찬성	769	51.5
반대	401	26.8
기타	324	21.7
계	1494명	100.0%

* “남성정치가가 여성권익을 더 잘 대변하기는 어렵다.”

‘남성정치가가 여성권익을 더 잘 대변하기 어렵다’는 말은 결국 여성이 여성권익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국회에서의 가족법 통과 과정을 보면 남성 정치가들이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된다. 어떠한 응답자의 약 반수는 현실 인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인정이나 의견유보 또는 남성정치가에 대한 신뢰의 태도 등은 연령구분, 경제수준, 조사지역 구분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구분, 학력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국민학교나 중학교 졸업자(38.5%) 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자가(46.8%),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는 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이(58.1%) 훨씬 더 현실인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성정치가가 여성권익을 더 잘 대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더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여성의 정치관여에 대한 인식

“정치는 남성의 고유 영역이므로 여성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하여 찬성이 128명(8.6%), 반대 1294명(86.6%), 의견유보가 72명(4.8%)으로 절대 다수가 이와 같은 보수적인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표II-2-6> 여성의 정치관여에 대한 인식 *

	응답자 수	백분율
찬성	128	8.6
반대	1294	86.6
기타	72	4.8
계	1494명	100.0%

* “정치는 남성의 고유영역이므로 여성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보수적인 견해를 밝힌 128명을 분석해 본 결과 남성이(11.0%) 여성보다(5.1%)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연령구분에 따라서는 18-25세 연령집단(6.4%)보다는 그 이상의 연령층이 더 보수적인 경향(9.4-11.0%)을 보였다. 학력구분에 따라서는 저학력이 고학력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조사지역 구분 및 경제 수준 등에 따라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정치는 남성의 고

유 영역이라는 견해에 찬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지위 평등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의 여성은 사회에서 남성보다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극히 현실인식적인 진술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76.8%)

〈표Ⅱ-2-7〉 지위평등에 대한 의견*

	응답자 수	백분율
찬성	1148	76.8
반대	235	15.7
기타	111	7.4
계	1494명	100.0%

* “우리나라 여성은 사회에서 남성보다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235명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역시 남성의 비율이(18%) 여성(12.5%)보다 다소 더 높다. 연령구분별로 볼 때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학력구분에 따라서도 반응상에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현실인식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부정응답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외에 종교, 거주지역, 경제수준 등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 불평등 해소 방안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한 지위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불평등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답지가 주어졌다.

〈표II-2-8〉 남녀 불평등 해소방안

응답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다수의 여성 정치가를 선출해서	101	6.8
활발한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서	737	49.3
정부의 법개정을 통해서	327	21.9
정당의 공천제도 개선을 통해서	111	7.4
기타	118	7.9
모르겠다	100	6.7
계	1494명	1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여성 단체 활동’이고 ‘법개정’이 그 다음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단체 활동’과 ‘법개정’을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71.2%가 이 두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외에 ‘여성정치가 선출’, ‘정당공천제도 개선’ 등 더욱 집적적인 방안들은 각각 6-7%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통한 남녀평등의 실현보다는,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같은 점진적인 방법이나, ‘법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여성문제 인식에 대한 반응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남녀평등을 진보적인 여성인식으로, 여성의 한계인정을 보수적인 여성인식으로 편의상 구분한다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자보다는 결혼한 사람이,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연령이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도시지역 거주자보다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더욱 보수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문제 인식에 있어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의 사회정의 실현과 함께 특히 여성지도자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에서도 여성의 잠재력 개발에 더욱 힘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체의 신규사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은 여러가지 명분으로 제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이 무한정하지 않다는 인식에 도달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여성 고급인력 개발에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되지 않고, 고용에 있어서도 밀리고 정치지도자로 커가는데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받는 데에는 여성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여성이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

가. 청소년 비행의 원인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은 단일 요인적이라기 보다는 다요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단일 기회적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친 누적적 경험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비행, 그 자체도 청소년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과성의 단순비행에서 부터 범죄성 비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몇개의 질문으로 청소년 비행의 전모를 밝힌다거나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II-3-1〉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의 원인

원 인	응답자 수	백분율
학교주변의 유흥접객업소 및 악덕업자	170	11.4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풍토	446	29.9
부모의 무관심이나 과잉보호	304	20.3
불 건전한 교우관계	72	4.8
여가활용장소 부족	72	4.8
T.V., 라디오, 잡지, 스포츠신문 등 대중매체 영향	268	17.9
정부의 청소년 정책 미비	131	8.8
기타	31	2.1
계	1494 명	100.0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약 30%가 청소년 비행이나 탈선의 중요 요인으로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풍토'를 들고 있다. 중등교육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보편교육으로 된 이 시점에서, 아직도 경쟁위주의 엘리트 교육풍토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풍토 속에서 능히 대학갈 수 있고 만족을 느끼는 학생들은 몇몇 안되는 성적 중.상위권 학생들이다. 성적 하위권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인정을 못받을뿐 아니라 누적된 실패의 경험에 의해서 자아개념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 자아개념과 함께 저항심, 공격적 본능 등이 싹터서 언제든지 기회가 닿는다면 비행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두번째로 많은 반응을 보인 분항은 '부모의 무관심이나 과잉 보호'(20.3%)이다. 청소년 비행에는 학교의 책임뿐만 아니라 가정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훌륭한 부모,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쉽다. 무관심과 과잉보호는 서로 상반되는 상황설정으로서 그 어느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다음으로 많은 반응을 보인 분항은 '대중매체의 영향'(17.9%)과 '학교주변 환경불량'(11.4%)이다. 이 두개의 원인요인을 합하면 29.3%나 된다. 이 두 요인 모두가 사회환경에 관련된 요인이다. 최근 스포츠 신문의 만화는 정말로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일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난잡하기 이를데 없다. 영화, 비디오, 만화 등 저속하기 이를데 없는 홍보매체에 우리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거기다 학교주변에는 한 발자욱만 발을 들여 놓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각종 유흥업소들이 많다. 결국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로 크게 3등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에도 앞에서 언급된 3가지 요인에 반응이 집중되는 현상은 변함이 없었으나 연령 집단간에 다소의 반응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 풍토'에 대하여 18-25세 연령집단은 36.8%를, 26-33세 연령 집단에서는 24.9%의 반응을 보인데 반하여 34-39세 연령집단에서는 21.3%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서는 18-25세 연령집단이 13.9%, 26-33세 연령집단이 19.3%의 반응을 보인데 비하여, 34-39세 연령집단의 응답자들은 26.8%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젊은 세대는 학교교육 풍토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그리고 청장년 세대는 사회풍토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보였다.

나. 교사의 체벌에 대한 인식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Ⅱ-3-2〉 교사의 체벌에 대한 인식

의견	응답자 수	백분율
체벌은 좋은 교육방법이다	90	6.0
체벌은 경우에 따라서 해야 한다	939	62.9
체벌은 가능한한 가하지 말아야 한다	365	24.4
체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폐습이다	81	5.4
잘 모르겠다	19	1.3
계	1494 명	100.0 %

전체적으로 보아서 응답자들은 교사의 체벌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체벌은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6.1%나 되고, ‘체벌은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선택적 체벌에 대해서도 63%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체벌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9%를 점하고 있다. 즉 응답자의 2/3는 전면적이든 선택적이든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체벌로 인해 생기는 형사 및 민사 제판의 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몇몇 학부모 단체 등에서 체벌 금지 캠페인을 벌리고 있으나, 국민 전체의 의식은 아직 ‘체벌 유용론’쪽에 머무르고 있는것 같다.

체벌이 인간의 발달이나 교육 그 어느 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재론을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규명된 사실이다.

오히려 성장하는 청소년의 자아를 왜곡시키고, 힘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간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하루 속히 추방되어야 할 비민주적 요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전통에서는 체벌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왔으며, 더우기 일제 36년 동안의 일본 제국주의 체제하에서는 체벌이 교육의 강력한 수단으로 권장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그늘진 전통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식개혁을 막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령구분에 따라서 볼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벌옹호의 경향을 띄어 가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체벌반대의 입장이 더욱 명료해진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II-3-3〉 연령구분에 따른 교사 체벌에 대한 인식

	계	연 령 구 분		
		18-25	26-33	34-39
체벌은 좋은 교육방법	6.0	4.1	7.1	9.1
체벌은 경우에 따라서 해야함	62.9	57.8	66.4	69.3
체벌은 가능하면 가하지 말아야함	24.4	30.3	21.1	15.4
체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됨	5.4	7.0	4.3	3.5
기타	1.2	0.9	1.1	2.8
계	100.0 % (1494)	100.0 % (704)	100.0 % (536)	100.0 % (254)

이와 같은 결과는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생활속에서 민주화가 진척되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제벌 허용의 풍토가 젊은 세대로 옮겨질수록 약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외에 성별, 지역별, 학력별 등의 구분에 따라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 재수생 발생의 원인

재수생 문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명문대학을 가기위해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처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재수생이란 범주속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대학의 문호는 좁고, 대학에 가려는 사람은 많은데서 이와 같은 재수생이 생겨나게 된다. 현재 인구 비례로 본 한국의 대학생 인구는 세계 최고수준에 있다. 인구 10만명당 대학생수는 세계 3위이고, 남자인구 10만명당 남자대학생 수는 세계 1위이다. 대학생 정원이 낮게 책정되어서 재수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특이한 한국적 문화 때문에 재수생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재수생의 누적도 다요인적 원인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표II-3-4〉 재수생 발생 원인

원 인	응답자 수	백분율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져야만 출세할 수 있어서	1175	78.6
부모의 요청 때문에	126	8.4
전공학과의 공부를 하고 싶어서	30	2.0
대학에 진학하면 징집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5	1.0
재수 이외의 다른 방도가 없으므로	102	6.8
기타	46	3.0
계	1494 명	100.0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78.6%)이 재수생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져야만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를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온다. '출세'라는 말이 다양한 것을 함축하고 있고 또,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출세'는 각각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출세에 한몫한 사람들처럼 국민 10명중 8명은 대학을 가야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문제는 응답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문의 여지없이 가야하는 보통교육 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능력, 적성,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바가 대학 진학이기 때문에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4배쯤이 시험을 치르고, 그중 대다수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중 상당수는 다음번의 도전을 위해 재수생 신분으로 남는다. 재수생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대체로 수용적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미정착', '미결정'의 경계인(Marginal Man)으로서 재수생은 하나의 분명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라. 재수생 누적 해소 방안

"재수생 누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8개의 응답지가 주어졌다.

〈표II-3-5〉 재수생 누적 현상 해소 방안

해소 방안	응답자 수	백분율
대학정원을 재수생분제가 해결될 때까지 증원	30	2.0
병역제도를 개선하여 고졸자에게도 대학입시에 관계없이 4년간 징집연기 기회를 부여	66	4.4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줄임	717	48.0
전문,기술대학 정원을 많이 늘임	207	13.9
고졸자에게 취업지도와 직장알선을 강화	341	22.8
중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도록 진로지도를 강화	59	3.9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2번까지로 제한	18	1.2
기 타	56	3.7
계	1494 명	100.0 %

제시된 8개의 해소방안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방안은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격차 해소'(48%)이다. 그 다음이 '고졸자에게 취업지도와 직장 알선 강화'(22.8%)이고, 세번째는 '전문기술대학 정원 확대' (13.9%)이다. 나머지 5가지 방안은 1~4% 수준의 지지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 대졸자와 고졸자 간에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임금격차에 못지 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고졸자에 대한 업무영역의 제한과 승진기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격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할지라도 고졸자는 항상 제한된 업무만을 맡게 되고 따라서 승진기회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면, 생애에 걸치는 직업으로서는 문제가 있게 된다.

최근에 몇몇 기업에서 사내대학을 개설하여 고졸자에게 일정기간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것을 대학졸업으로 인정해주는 기업내규를 채택하고 있음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다. 학력이 지배하는 사회, 학력이 지배하는 기업이 아니라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와 기업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사회와 기업이 지향해야할 방향이다.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와 취업지도 및 직장알선의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런대로 진로지도, 취업지도 및 직장알선 등이 잘되고 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혀 손조차 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학진학 희망자의 1/4만이 결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나머지 3/4은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 1/4의 학생들만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3/4은 결국 대학 진학자들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게 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진로지도를 해주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취업반의 운영이나, 실업계 고등학교로의 전학허용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망되는 소이가 여기 있다.

전문, 기술대학의 정원 확대는 이미 정부방침이 세워져 있고 실천되고 있는 중이다.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전문대학생의 취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업발전에 따라 전문대학은 많이 신설될 전망이다. 그러나 취업이 잘된다고 해서 전문대학의 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문제는 있다. 교육제도가 학생의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소화해야 할터인데 우리의 대학제도는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부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욕구가 차단되고 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즉시든 또는 취업을 한 후이든 더 상위의 교육을 받고 싶을때 그 문호는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개방대학이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고 대학 3-4학년을 중심으로 한 야간대학도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재수생의 누적 해소 방안에 대한 지역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분석에서도 전체적인 선택 경향과 대체로 일치되었다.

마. 중.고등학교에서 더욱 필요한 과목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 결과는 다음의 표에 제시되었다. 지금까지의 질문이 청소년과 관련되는 학교 외적 상황에 대한 것이라면 이 질문은 바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적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표Ⅱ-3-6〉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더욱 필요한 과목

과 목	응답자 수	백분율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본과목	94	6.3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 및 윤리과목	876	58.6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202	13.5
취업기술 교육과목	276	18.5
기 타	46	3.1
계	1494 명	100.0 %

1494명의 응답자 중에서 876명(58.6%)이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 및 윤리과목을 지적하고 있다.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택한 13.5%의 응답자들을 합하면 72%의 응답자들이 인격도야에 관련되는 과목을 택하고 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나 출세하는데 있어서 거의 필수과목화 된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과목에 대한 선호도는 6.3%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정말로 국어, 영어, 수학등의 기본과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정말 그렇다 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국,영,수가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학교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도덕부재의 사회현실에 대한 우려가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 및 윤리과목'의강조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될 수 있다.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국민윤리에 해당되는 과목의 비중이 결코 적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란 교과간에 균형을 이루어야지 도덕 부재의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국민윤리 과목만을 무작정 높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응답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입시준비 교육을 전인교육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주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을 위한 기술교과목이 더 필요하다는 반응이 두번째의 요구사항이란 점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은 취업을 위한 준비교육도, 인격완성을 위한 전인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에서 제시된 결과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희망사항이 함께 표출된 반응이다.

교육수준에 따라 분석한 자료는 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준다.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인성교육을 큰 비율로 지지하고 있으나(61%), 국민학교 또는 중학졸업자는 그 지지도가 뚝 떨어져 39.2%만이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취업기술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저학력자의 38%가 지지하고 있으나 고학력자의 지지도는 약 17.4%에 그치고 있다.

인격완성을 위한 과목과 직업기술을 위한 과목은 그 어느 것도 경중을 가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인성교육과 직업기술 교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육체제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바. 교사에 대한 인식

교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는다. 때로는 성직자로, 때로는 전문가로, 때로는 노동자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교사의 위치는 변한다. 이와 같은 가변성이 교직사회에 여러가지 신분상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도 노동자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성향은 다음표와 같이 나타났다.

<표Ⅱ-3-7> 교사에 대한 인식*

반응 성향	응답자 수	백분율
강한 찬성	341	22.8
약한 찬성	355	23.8
찬성도 반대도 아님	258	17.3
약한 반대	243	16.3
강한 반대	297	19.9
계	1494 명	100.0 %

* " 초, 중, 고등학교 교사도 노동자이다."

우선 '교사도 노동자'라는 입장에 대하여 강하든 약하든 간에 찬성하는 사람은 46.6%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36.2%로 나타났다. 그리고 찬성도 반대도 아닌 반응유보가 17.1%나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적인 교사관에 상당한 변혁이 오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사는 지식소유자로서 선비 또는 전문직으로 우대되어 왔으나 노동자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관점이다. 교원노조 사태로 인해서 교사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많이 흔들린 결과로도 볼 수 있고, 교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매우 미흡한데서 파생된 결과로도 생각될 수 있다.

'교사도 노동자'라는 견해는 교사의 사회적 위상을 격하시키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정당한 일을 하고 그 댓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보편적인 직업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연령별로 볼 때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사를 노동자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사도 노동자'라는 견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Ⅱ-3-8〉 연령 구분에 따른 교사관

		연 령 구 분		
		18-25	26-33	34-39
계				
찬 성	46.6	50.4	46.9	35.8
중 립	17.2	18.4	18.3	11.9
반 대	36.2	31.2	34.8	52.3
계	100.0 % (1494)	100.0 % (703)	100.0 % (535)	100.0 % (254)

또한 응답자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도 교사관에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사를 노동자로 보는 견해가 강하게 나타났다. '교사도 노동자'라는 견해에 대하여 본 조사에서 응답자에 포함된 교사들의 반응도 대체로 노동자관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35명의 교사를 분석한 결과 57.2%의 교사가 '노동자'관에 찬성하였고 37.2%가 반대하였다.

<표II-3-9>

학력 구분에 따른 교사관

	계	학 력 구 분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제이상
찬 성	46.6	37.7	43.3	51.4
중 립	17.2	16.1	17.8	16.5
반 대	36.2	46.2	38.9	32.1
계	100.0 % (1494)	100.0 % (140)	100.0 % (622)	100.0 % (732)

그러나 지역구분, 성별구분, 출생지, 수입, 경제수준 구분 등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에 교사의 위상이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요약 및 결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청소년 및 교육문제는 서로 엉켜진 채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청소년 문제의 담당은 국무총리실에서 문교부로, 그리고 최근에는 문교부에서 다시

제육부로 옮겨졌다. 청소년 및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 업무의 책임 한계가 더욱 분명히 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청소년 및 교육문제는 학교나 가정, 사회, 정부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일거리로 대처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 풍토가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지역의 중, 고등 학생들은 전인교육을 포기한 채 입시준비 교육에 온 힘을 다 쓰고 있다. 학교교육 속에서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여기에서 생긴다. 학교교육에서 전인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교과목 수를 현재보다 대폭 줄이고, 인성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이나 교육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잘 살수 있도록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교사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궁극적으로 교사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사회가 하여야 할 것이며,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교사들은 스스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더욱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경제현안에 대한 태도

가. 기업 우선인가 분배 우선인가?

1) 대다수는 '기업우선'과 '분배우선'간의 균형있는 발전 요구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노사관계의 악순환 과정은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이나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배려없이 자신의 몫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년층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기업경영의 성과로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청년층은 '노동자의 몫'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으며, '기업의 존속 및 성장'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가 기업경영의 성과로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기업활동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5.6%는 '이익의 2/3은 기업활동에, 1/3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37.0%는 '이익의 절반은 기업활동에, 절반은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였으며, 이보다 적은 21.9%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몫이 기업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해 재투자되는 몫보다 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 '기업우선'과 '분배우선'에 관한 태도*

응답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1. 기업경영 성과의 이익은 전액 기업 활동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74	5.8
2. 이익의 2/3는 기업활동, 1/3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532	35.6
3. 이익의 1/2은 기업활동, 1/2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546	36.5
4. 이익의 1/3은 기업활동, 2/3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255	17.1
5. 이익의 전액을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68	4.6
6. 무응답	19	1.3
계	1494 명	100.0 %

*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다음 중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2) 소득별 차이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응답내용 중의 1항과 2항은 기업의 존속 및 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업우선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3항은 '중립적'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4항과 5항은 '분배우선'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재분류하여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이익의 배분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태도상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기업우선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낮을

수록 '분배우선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인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기업우선'과 '분배우선'에 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II-4-2〉 소득별 '기업우선'과 '분배우선'에 관한 태도

	30만원 미만	30-70만원	70만원 이상
기업 우선	35.0	41.0	42.8
중립적	38.8	35.0	39.1
분배 우선	26.2	24.1	18.2
계	100.0 % (237)	100.0 % (715)	100.0 % (435)

나. 노사분규 - 누구의 책임인가?

1) 전반적 성향

오늘의 노사분규현상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양측 모두에게 있다는 중도적 의견이 50.5%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차츰 정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자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견해(16.9%)보다는 '사용자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견해(32.6%)가 두 배에 가까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청년층에서는 사용자측의 입장을 두분하는 사람들보다는 근로자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4-3〉 노사분규에 대한 태도*

응답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1. 노동자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98	6.6
2. 노동자의 요구가 약간 지나치다	154	10.3
3. 노동자, 사용자 모두 문제가 있다	753	50.4
4.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미흡	286	19.1
5.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아주 미흡	200	13.4
0. 무응답	3	.2
계	1494 명	100.0 %

* "노동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노사분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지역별 차이

분석의 편리를 위하여 응답 내용의 1항과 2항은 '근로자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견해로, 4항과 5항은 '사용자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견해로 각각 결합하여 지역에 따라 노사분규에 대한 태도상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사용자측을 두둔하거나 근로자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견해는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근로자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부산, 경남지역이 25.0%로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전라남북도 지역의 응답자 중에서는 이보다는 훨씬 낮은 11.7%만이 사용자측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여타지역의 응답자들도 전라도 지역의 응답자들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비율은 충청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41.3%), 다음으로 전라남북도(38.6%),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33.4%), 대구, 경북지역(26.5%) 그리고 부산, 경남지역(23.8%)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연령별 차이와 학력별 차이

연령이 높을수록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사용자측의 입장에 서고, 연령이 낮을수록 또는 학력이 낮을수록 근로자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또한 포착되었다.

〈표 II-4-4〉 연령별, 학력별 노사분규에 대한 태도

	연 령			학 력		
	18-25	26-33	33-39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학재학이상
근로자 책임이 더 큼	14.1	16.1	26.4	27.9	17.4	14.1
양측 모두 책임 있음	49.7	51.6	50.0	48.8	51.1	50.5
사용자 책임이 더 큼	36.2	32.3	23.6	23.3	31.5	35.3
계(%)	100.0 (702)	100.0 (503)	100.0 (254)	100.0 (129)	100.0 (622)	100.0 (730)

4) 직업별 차이

주요 직업별로 노사분규의 책임소재에 관한 태도를 보면, 역시 대학 생집단이 사용자측의 입장에 대해 가장 낮은 지지율(10.5%)을 보이고 있고 노동자측의 입장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도(40.7%)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5〉 직업별 노사분규에 대한 태도

	회사원	대학생	주부	자영업사업자	농업종사자
사용자측 동조	17.4	10.5	16.8	18.8	25.7
중 도 적	54.4	48.9	62.0	45.0	44.6
노동자측 동조	28.2	40.7	21.2	36.1	29.7
계(%)	100.0 (241)	100.0 (306)	100.0 (138)	100.0 (191)	100.0 (101)

5) 스스로 지각하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주관적으로 판단한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사용자측의 입장에 동조하고,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노동자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 선결해야 할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설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과소비', '물가상승', '부동산 투기'가 선결문제

응답자 전체로 볼때, 우리사회가 우선 선결해야 할 경제문제로서 '과소비'(32.4%), '물가상승'(29.7%), '부동산 투기'(17.2%) 등 직접

적으로 가계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적인 빈곤감 등을 야기시키는 문제들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6〉 선결해야 할 경제문제

응답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물가상승	444	29.7
과소비	484	32.4
수출부진	57	3.8
부동산 투기	257	17.2
외국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122	8.2
노사분규	54	3.6
경제성장속도의 둔화	54	3.6
학생데모	16	1.1
무응답	6	.4
계	1494 명	100.0 %

2) 주요직업별 선결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로서 대다수의 집단은 ‘물가상승’, ‘과소비’, ‘부동산 투기’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유독 근로자 집단에 있어서는

‘과소비’의 문제를 최우선의 선결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집단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상대적 빈곤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4-7〉 직업별 선결 경제문제

	회사원	대학생	주부	근로자	농업종사자
물가상승	35.3	31.8	33.3	29.1	22.8
과소비	30.7	29.5	30.4	45.3	22.8
수출부진	4.1	1.3	4.3	2.3	5.0
부동산 투기	18.7	19.7	11.6	8.1	19.8
시장개방	3.3	11.1	8.0	8.1	19.8
노사분규	1.7	1.6	7.2	2.3	6.9
경제성장 둔화	5.0	4.3	2.9	2.3	3.0
학생데모	1.2	.7	2.2	2.3	-
계(%)	100.0 (241)	100.0 (306)	100.0 (138)	100.0 (86)	100.0 (101)

라. 시장개방의 속도, 어떻게 인식하나?

1) ‘빠르다’는 인식이 지배적

현재의 시장개방 속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6.3%가 '너무 빠르다'로 응답하고 있고 전체의 69.2%가 우리의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 시장개방 속도에 대한 인식*

응답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1. 너무 빠르다	393	26.3
2. 빠르다	634	42.4
3. 알맞다	184	12.3
4. 느리다	79	5.3
5. 너무 느리다	31	2.1
6. 모르겠다	166	11.1
0. 무응답	7	.5
계	1494명	100.0 %
"한국 경제의 국제화와 더불어 정부는 단계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방속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학력별 및 주관적 생활수준별 차이

분석의 편리를 위하여 응답내용 중의 1항과 2항은 '현재의 개방속

도가 빠르다'고 인식하는 응답군으로, 4항과 5항은 '현재의 개방속도가 느리다'고 인식하는 응답군으로 구분하여, 학력, 연령, 소득, 성별, 직업, 종교, 주관적 생활수준 등의 요인이 시장개방 속도에 대한 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이중 학력과 주관적 생활수준이 시장개방 속도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이하의 학력보유자의 58.9%가 현재의 시장개방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한 반면에 대학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 중에는 이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72.7%가 빠르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중간인 67.4%가 현재의 개방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하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시장개방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 경제, 정치상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현상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력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다음 표에서 보듯이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현재의 시장개방의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높게 나타났다.

〈표 II-4-9〉 학력별, 주관적 생활수준별 시장개방 속도에 대한 인식

개방속도에 대한 인식	학 력			주관적 생활수준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제이상	상	중	하
빠르다	58.9	67.4	72.7	61.1	67.2	73.5
알맞다	14.7	12.3	12.1	16.0	13.2	10.4
느리다	7.8	7.9	7.0	12.2	8.1	5.3
모르겠다	18.6	12.4	8.2	10.7	11.5	10.8
계	100.0 % (129)	100.0 % (619)	100.0 % (729)	100.0 % (131)	100.0 % (789)	100.0 % (565)

마. 10년 후의 우리사회 어떻게 변할 것인가?

1) 낙관적인 미래관

경제적 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대다수(61.5%)가 10년 후의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살기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0〉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응답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1.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287	19.2
2. 지금보다 다소 살기 좋을 것이다	631	42.2
3.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311	20.8
4. 지금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112	7.5
5.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48	3.2
6. 모르겠다	103	6.9
0. 무응답	2	.1
계	1494 명	100.0 %

“ 지금부터 10년 후에 우리사회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2) 학력별 차이

분석의 편리를 위하여 응답항목 중의 1항과 2항을 하나의 응답군으로, 4항과 5항을 하나의 응답군으로 묶어 제반 사회배경 변수와 교차분석을 한 결과, 학력과 직업에 따라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이하의 학력보유자들 중에서는 50.8%가 낙관적인 미래관을 보이고 있음에 비하여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 중에서는 63.0%정도가, 대학제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10년 후의 사회는 '지금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중졸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응답자들 중에서는 16.9%가 10년 후의 사회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로 응답한 반면에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10.9%가, 대학제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중에서는 9.5%가 비관적인 미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미래의 사회에 대하여 낙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4-11〉 학력별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학제학 이상
지금보다 살기 좋을 것임	50.8	63.0	62.5
지금과 같을 것임	22.3	18.6	22.3
지금보다 나빠질 것임	19.6	10.9	9.5
모르겠다	10.0	7.4	5.8
계	100.0 % (130)	100.0 % (622)	100.0 % (730)

3) 직업별 차이

직업별로는 미래의 사회에 대한 전망상에 전반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특이한 것은 주부들이 타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낙관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직업별로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II-4-12〉 직업별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회사원	대학생	주부	자영업자	근로자	농업종사자
살기 좋을 것이다	63.3	62.4	54.3	62.3	67.4	67.3
현재수준을 유지	22.5	22.5	22.5	19.4	11.6	15.8
나빠질 것이다	8.8	7.8	13.9	12.0	7.0	13.9
모르겠다	5.4	7.2	9.4	6.3	14.0	3.0
계	100.0% (241)	100.0% (306)	100.0% (138)	100.0% (191)	100.0% (86)	100.0% (101)

요약 및 결론

1.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대다수가 10년 후의 우리사회가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많은 혼란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의 청

년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러한 기대감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과제라고 생각된다.

2. 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대체적으로 '과소비', '물가상승',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수출부진'이나 '경제성장 둔화'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노동자의 몫'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가운데 '기업의 존속 및 성장'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장개방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며 사용자보다는 근로자의 입장을 더 두둔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청년층의 의식구조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계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물질적 여건의 뒷받침 못지 않게 정신적 의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는 소득재분배 강화와 복지 정책에 토대를 두는 균형적 발전의 적극적 추진이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위한 공통적 의지조성의 선결 조건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5. 외교, 안보, 통일 정책

가. 먼저 주한미군에 대하여 ‘남북한 군사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필요하다’(41%), ‘남북한 관계가 어떻든지간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37%),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절대로 필요하다’(13.8%), ‘지금 당장 철수되어야 한다’(8%)의 순으로 나타나서 ‘남북한 군사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1%로 제일 많으나 ‘남북한 관계가 어떻든지간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37%나 되어 주한미군의 당위성이 약해지거나 변색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더우기 ‘무조건 당장 철수’를 지지하는 응답자 8%를 감안하면 남북한 관계에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당장 또는 점진적 철수를 주장하는 응답자가 45%나 되어 주목할 만하다.

지역별로는 ‘남북한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부산, 경남지역이 42.8% 긍정적이었고 ‘남북한 군사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에 대하여 수도권 지역 즉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이 44.4%, 대구, 경북지역이 42.9%로 평균 41.1%보다 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절대로 필요하다’에 대하여는 대구, 경북지역 24.0%로 평균치 13.8%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즉 대학재학 또는 대졸의 경우 42.1%,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의 경우 45.9%로 평균치 37%를 상회하고 있으며, ‘남북한 군사균형이 이루

어질 때까지는 필요하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의 응답자의 경우 46.3%로 평균치 41.1%를 상회하고 있다.

〈표Ⅱ-5-1〉 학력별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론 지지도

	계	학 력		
		중졸	고졸	대졸
철수해야 함	44.9	33.6	38.3	53.1
보 류	41.1	38.3	46.3	37.2
절대 필요	14.0	28.1	15.4	9.7
계	100.0% (1494명)	100.0% (133명)	100.0% (626명)	100.0% (735명)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절대 필요하다’에 대하여는 학력이 낮을 수록 지지도가 높아져서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냈다. 즉 국졸 34.6%, 중졸 26.0%로서 평균치 13.8%보다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보면 ‘남북한 관계가 어떤지간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18-25세(42.5%), 26-33세(35.1%), 34-39세(24.8%)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남북한 군사균형이 이루어질때 까지는 필요하다’에 대하여 18-25세 (36.7%), 26-33세(43.4%), 34-39세(48.8%)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 생활수준에 따른 태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보수, 중도, 진보 등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하여 보수적인 사람은 33.6%, 중도적인 사람은 33.6%이나 진보적인 사람은 43.8%의 강한 지지도를 나타냈고, '남북한 군사균형이 이루어질때까지 필요'에 대하여 보수적인 사람은 46.4%, 중도적인 사람은 46.5%이나 진보적인 사람은 30.5%의 낮은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나.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정책에 대하여는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50.7%), '현재대로 좋다'(7.4%),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36.7%)로 나타나서 청장년층에선 정부가 더 과감한 대북한정책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에 대하여 부산, 경남 지역이 54.7%,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이 54.8%로 평균치 50.7%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에 대하여는 대구, 경북 지역이 40.8%로 평균치 36.7%보다 상회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에 대하여 남성은 54.7%, 여성이 45.2%로 남성이 더 적극적인 입장이며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에 대하여는 남성이 33.8%, 여성이 41.0%로 여성이 더 신중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일수록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대제 또는 대졸의 경우 58.8%,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인 경우 67.6%로 평균치 50.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신중론에 대하여는 중간학력인 중졸이 40.4%, 고졸이 42.4%의 찬성으로

평균치 36.7%를 상회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8-25세(52.3%), 26-33세(52.1%), 34-39세(42.9%)순으로 젊을수록 대북한 적극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표 참조) 또한 대북한정책의 신증론은 18-33세 (약 35.5%), 34-39세(42.5%)의 높은 연령일수록 우세하다. 대북한 적극정책을 찬성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대학생(60.8%), 교사(65.7%), 전문직 종사자(73.7%)로서 평균치 50.7%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은 역으로 대북한 정책의 신증론에 대하여 대학생 (30.1%), 교사(25.7%), 전문직 종사자(26.1%)로 평균치 36.1%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표II-5-2> 연령별 대북한 적극 정책 지지도

		연 령 별		
		18-25세	26-33세	34-39세
적극 지지	50.7	52.9	52.2	42.9
현상 유지	7.4	4.7	9.0	11.4
보류	41.9	42.4	38.8	45.7
계	100.0% (1494명)	100.0% (699명)	100.0% (537명)	100.0% (258명)

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중심'(46.1%)이 가장 많았고, `민족자존을 중심으로한 새로

은 체제속에서의 통일'(30.9%)이 다음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절충형'(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만 된다면 어떠한 체제도 상관없다'(3.2%), '사회주의 체제 중심'(1.7%)등의 반응 결과로 보아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일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 이내에 불과하며 민족자존을 중심으로한 사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지지를 지지한 사람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심'에 대하여 대구, 경북이 53.6%로 가장 강한 지지도를 나타냈고 충남, 충북 지역이 36.0%로 가장 저조한 지지도를 나타냈다. '민족자존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체제속에서의 통일'에 대해서는 충남, 충북이 40.4%로 평균치 30.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중심'에 대하여는 국졸(50.0%), 중졸(46.2%), 고졸(49.5%), 대제 또는 대졸(43.2%), 대학원재학 또는 졸업(48.6%)로 비교적 고른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민족자존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체제속에서의 통일'에 대해서는 국졸(7.7%), 중졸(19.2%), 고졸(25.6%), 대제 또는 대졸(38.1%),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35.1%)로 저학력의 경우 평균치 30.7% 보다 낮고 고학력의 경우엔 평균치 보다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18-25세 (40.8%), 26-33세(47.5%), 34-39세(57.5%)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지지도가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 '민족자존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체제속에서의 통일'

에 대해서는 18-25세(34.4%), 26-33세(31.0%), 34-39세(20.9%)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지지도가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아래표 참조) 대학생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36.9%로 평균치 46.1%보다 낮으며 '민족자존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체제속에서의 통일'에 대해서는 41.5%로 평균치 30.9%보다 높다.

〈표II-5-3〉 연령별 통일 후의 체제 지지도 비교

	계	연령별		
		18-25세	26-33세	34-39세
자유민주주의 체제	46.1	40.9	47.5	57.5
사회주의 체제	1.7	2.3	1.1	1.2
민족자존 중심	30.9	34.5	31.0	20.9
절충형 및 기타	21.3	22.3	20.4	20.4
계	100.0% (1494명)	100.0% (702명)	100.0% (536명)	100.0% (256명)

라.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모르겠다'(32.7%), '10년 이내' (21.9%), '20년 이후'(15.7%), '20년 이내'(11.7%), '15년 이내'(9.8%), '5년 이내'(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약 절반이 20년내에 남북통일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아래표 참조)

지역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나 '모르겠다'에 대하여 충남,북 지역이 41.6%를 나타내어 평균치 32.7%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모르겠다'에 대하여 남성은 25.4%, 여성은 43.1%로 여성이 훨씬 더 확실한 전망을 하고 있다. 또한 학력별로 보면 '모르겠다'에 대하여 국졸(50.0%), 중졸(39.4%), 고졸(34.2%), 대졸(30.2%), 대학원(8.9%)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적은 비율의 응답자를 나타냈다.

<표II-5-4> 남북통일 예상시기별 응답자 수(비)

응답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5년 이내	116	7.8
10년 이내	327	21.9
15년 이내	147	9.8
20년 이내	175	11.7
20년 이후	235	15.7
모르겠다	488	32.7
무응답	6	0.4
계	1494명	100.0%

그러나 최근의 진전상황 즉, 한.소 국교수교, 한.중국간 영사관계 수립 예정, 남북한 고위 당국자회담 및 체육교류 등을 감안하면 지금 재조사할 경우, '모르겠다'라는 응답자는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 남북통일의 저해되는 요인으로서 '김일성의 폐쇄정책'(43.6%), '한국정부의 미온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17.6%), '남.북한 국민들의 자기 체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열망'(16.9%), '한반도 주변 4강(미, 소, 중, 일)의 미온적인 태도'(13.9%)의 순으로 '김일성의 폐쇄정책'이 가장 큰 저해요인 (43.6%)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3.0%로 큰 저해요인으로 보이지않고 있다.

남북통일의 가장 저해요인으로 응답한 '김일성의 폐쇄정책'에 대하여 대구, 경북 지역은 54.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이 47.4%, 부산, 경남 이 44.0%로 평균치 43.6%를 상회하는 반면, 충남, 충북이 31.1%, 광주, 전남, 전북이 29.9%로 평균치를 하회하여 큰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표 참조)

〈표II-5-5〉 남북통일의 저해요인으로 ‘김일성의 폐쇄정책’에 대한 지역별 태도

	계	지 역 별				
		호남	경남.부산	경북.대구	충청	서울.경기
김일성의 폐쇄정책	43.6	38.1	26.5	54.4	31.2	48.1
한국정부의 비온적 정책	17.6	26.5	18.7	10.8	25.0	15.2
주한미군	16.9	23.0	16.3	16.4	17.5	15.7
남북한 국민의 지 나친 열망	21.9	21.0	26.3	18.4	21.0	20.4
계	100.0% (1494명)	100.0% (676명)	100.0% (163명)	100.0% (197명)	100.0% (260명)	100.0% (198명)

같은 문제에 대하여 성별로 보면 남성은 40.2%, 여성은 48.5%로 여성이 더 ‘김일성의 폐쇄정책’을 남북통일의 가장 저해요인으로 믿고 있다. 또한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일수록 남북통일의 가장 저해요인이 ‘김일성의 폐쇄정책’이라고 믿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역시 같은 응답의 경우 연령별로 보면, 18-25세(37.7%), 26-33세(46.2%), 34-39세(54.3%)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남북통일의 가장 저해되는 요인이 ‘김일성의 폐쇄정책’이라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의 폐쇄정책’에 대하여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은 대학 및

대학원생 약 27%, 교사 28.6%, 전문직 종사자 34.8% 등이다.

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의 국방력과 맞추어 증감을 해야 한다'(34.1%), '현재상태를 유지해야 한다'(22.7%), '점차 축소를 해야 한다'(17.5%), 점차 증강해야 한다'(12.9%), '주변 강대국의 추세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12.2%)의 순으로서 외부여건 즉, '북한의 국방력 증감이나 주변 강대국의 추세에 따라 결정'이 46.3%, '현상태 유지' 또는 '점차 증강'이 35.6%로 주된 반응이었다.(아래표 참조)

〈표Ⅱ-5-6〉 국방력에 대한 태도

내 용	응답자 수	백분율
점차 축소	262	17.5
현상 유지	339	22.7
점차 증강	192	12.9
북한과 같이 증감	509	34.1
주변 강대국의 추세로 결정	183	12.2
무응답	9	0.6
계	1494 명	100.0 %

우리의 국방력에 대하여 가장 응답이 많은 '북한의 국방력과 맞추어 증감을 해야 한다'에 대하여 지역별로는 충남, 충북지역이 24.2%,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이 24.9%로 평균치 34.1%보다 크게 낮은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 같은 문제에 대하여 성별로는 남성이 37.6%, 여성이 29.2%로 여성이 평균치보다 낮은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역시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27.9%,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이 40.5%로 평균치 34.1%를 하회 또는 상회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층(18-25세)이 29.6%로 평균치 34.1%보다 낮은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소, 대중국, 대동구 정책에 대하여는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46.7%),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36.3%), '현재대로 좋다'(9.8%)의 순으로서 대북한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신중론이 우세하며, 아울러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의견도 36.3%나 되어 입장의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래표 참조)

〈표Ⅱ-5-7〉 대소, 대중국, 대동구 정책에 대한 태도

내 용	응답자 수	백분율
현재보다 적극적	542	36.3
현재 대로 좋다	146	9.8
현재보다 신중	698	46.7
보류해야 한다	26	1.7
모르겠다	72	4.8
무응답	10	0.7
계	1494 명	100.0 %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별로는 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에 대하여는 남성이 45.7%, 여성이 48.2%로 큰 성차이가 없으나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에 대하여는 남성 39.4%, 여성 31.8%로 평균치 36.3%를 중심으로 지지도에 있어서 약간의 성차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학력별로 볼때,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에 대하여 국졸이 26.7%, 중졸이 48.1, 고졸이 43.9%, 대재 또는 대졸이 58.4%, 대학원재학 또는 졸업이 43.2%로 국졸이 평균치 46.7%보다 그 지지도가 낮은 편이며 대재

또는 대졸이 높은 편이다. 또 같은 응답에 대해서 연령별로 보면 18-25세(44.4%), 26-33세(48.2%), 34-39세(50.0%)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중론이 우세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요약및 결론

1. 북방, 외교안보, 통일, 주한미군 등에 관한 태도는 최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한.소 수교, 동.서독 통합, 북한.일 접근, 한.중 공간 영사관계 예정, 남.북 고위회담 등)를 감안할 때 다소 가변적일 수 있음.

2. 그러나 조사결과 분석 토대로 특기할만한 사항은

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정책에 대하여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50.7%)가 가장 많고,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36.7%)가 다음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의 대표적인 지역은 부산, 경남(54.9%), 광주, 전남북(54.8%)이며 신중론이 대표적인 지역은 대구, 경북(40.8%)이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졸이상 약 60%), 연령별로는 18-33세의 젊은층이 더 적극적인 북한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이나 안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신중론(36.7%)을 의식하여 명분

과 실리있는 대북한 적극정책을 수립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심'(46.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족자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속에서의 통일'(30.9%)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들과 같은 고학력 저연령층에서 '민족자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속에서의 통일'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민족자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속에서의 통일도 모색한다고 할 경우, 젊은층으로 부터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대소, 대중국, 대동구 정책에 대하여는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4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36.3%)의 순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대북한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신중론이 우세하고 지역, 직업과 연령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시적인 한건주의, 한방주의를 위한 성급한 외교보다는 명분과 실리가 병행하는 신중외교를 전개함이 전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정부에 대한 태도

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의 문항에서 <표II-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도는 '북방정책'(36.2%), '민주화 추진'(14.1%)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같은 문항에서 '잘한 것이 없다'(34%)라는 지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6-1>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

정책 내용	지지도	학 력			연 령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제이상	18-25	26-33	34-39
민주화추진	14.1	22.3	17.8	9.6	13.2	12.7	19.7
경제(물가)정책	2.0	6.2	2.4	.8	1.6	1.7	3.9
치안유지	4.2	8.5	4.5	3.3	4.7	3.4	4.7
북방정책	36.2	25.4	34.9	39.2	34.0	37.9	38.6
복지정책	6.5	3.8	9.5	4.2	7.8	5.8	4.3
잘한 것이 없다	34.0	30.8	28.0	40.0	36.4	35.3	24.8
무응답	2.9	3.1	2.9	2.9	2.3	3.2	3.9
계	100.0% (1495)	100.0% (130)	100.0% (622)	100.0% (732)	100.0% (703)	100.0% (535)	100.0% (254)

그 이유는 <표 II-6-2> 에서와 같이 다음 문항의 '가장 잘못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에서 '경제(물가)정책'(60.2%), '민주화 추진'(16.3%), '치안유지'(12.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 정부는 외교정책의 중점분야인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으나, 국내문제인 경제(물가)정책의 실패와 치안유지의 문제점 때문에 전반적인 지지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리고 민주화의 추진문제는 '잘하고 있다'(14%), 보다 '잘 못하고 있다'(16.3%)는 지적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6-2>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도

정책 내용	반대도	학 력			연 령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재이상	18-25	26-33	34-39
민주화추진	16.3	20.8	11.9	19.4	18.5	14.6	13.8
경제(물가)정책	60.2	56.9	62.4	58.6	57.9	60.7	65.0
치안유지	12.4	10.0	15.9	10.0	10.4	13.6	15.7
북방정책	1.3	4.6	1.1	1.0	1.4	1.3	1.2
복지정책	2.9	3.1	2.3	3.3	4.0	2.2	1.2
기타	6.6	3.1	5.9	7.8	7.7	6.7	3.1
무응답	.3	1.5	.5		.1	.7	
계	100.0% (1495)	100.0% (130)	100.0% (622)	100.0% (732)	100.0% (703)	100.0% (535)	100.0% (254)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방정책'에는 많은 지지도를 보이거나 '민주화 추진'에는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물가)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을 지역적인 거주지, 출생지별로 분석하여 보면 부산, 경남, 전라남·북도는 현 정부에 대하여 낮은 지지도를 보이는 반면, 대구, 경북의 경우는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별로 보아도 경북, 대구의 경우 '민주화 추진'(17.9%)과 '북방정책'(49.0%)에 대한 지지도가 69.9%로 전국 평균 50.3%보다 훨씬 높으며, '잘한 것이 없다'는 19.9%로 전체 평균의 34%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산, 경남의 경우는 위의 항목에 대한 지지도가 42.8%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라남·북도의 경우도 지지도가 43.2%로 전체 평균보다 낮으며, '잘한 것이 없다'(43.1%)에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제 6공화국 정부에 대한 지지도에 있어서는 <표 II-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2.0%), '지지한다'(9.4%), '그저 그렇다'(49.9%), '반대한다'(24.7%), '절대적으로 반대한다'(13.7%)로 나타나고 있어 지지도가 11.4%인데 반하여 반대도는 38.4%로 현 정부에 대한 태도는 지지보다는 반대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표 II-6-3〉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응답자 수	백분율
절대적으로 지지	30	2.0
지지	140	9.4
그저 그렇다	746	49.9
반대	369	24.7
절대적으로 반대	205	13.9
무응답	4	.3
계	1494 명	100.0 %

〈표 II-6-4〉와 같이 절대 지지의 이유로는 ‘대통령의 직선’에 겨우 8%를 나타낸 반면, 무응답이 80.1%이며, 절대 반대하는 이유로도 민주화의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26%인 반면, 무응답이 51%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정부에 대한 태도는 심정적으로 막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정책전개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6-4〉 현 정부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

지지 이유	응답자 수	백분율	반대 이유	응답자 수	백분율
민주화	46	3.1	5공과 단절실패	113	7.6
평화적 정권교체	47	3.1	문민정치 미확립	99	6.6
직접 대통령선출	120	8.0	국민과반수 지지미달	45	3.0
국민 지지	54	3.6	민주화 실천 실패	389	26.0
기타	30	2.0	광주보상문제 미해결	16	1.1
			기타	70	4.7
무응답	1197	80.1	무응답	756	51.0
계	1494 명	100.0%	계	1494 명	100.0 %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서울, 경기 지역이었으며 전라도 지방의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수입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반대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다.

다. 정치지도자의 선택

정치지도자의 선택에 대해서는 <표 II-6-5>에서와 같이 ‘정치적 능력’(65.3%), ‘개인적 인품’(15.3%), ‘정책과 공약’(11.8%)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어, 정당의 정책과 공약보다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거주지 및 출생지, 성별, 교육수준, 직업, 종교, 연령 및 수입에 따라 분석을 해보아도 거의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의 방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나가 투표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올 것인지는 의문이다.

〈 표 II-6-5 〉 정치지도자의 선택

	응답자 수	백분율
정책과 공약	177	11.8
개인적 인품	229	15.3
소속 정당	33	2.2
학력과 경력	27	1.8
정치적 능력	975	65.3
출신 지역	12	.8
기 타	35	2.3
무응답	6	.4
계	1494 명	100.0 %

라.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지지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의 지지정당을 보면 <표 II-6-6>에서의 같이 '민정당'(23.4%), '평민당'(24.4%), '민주당'(23.9%)으로 정당의 지지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앞으로의 선거에서 선택할 정당에 대해서는 '민자당'(19.3%), '평민당'(15.7%), '민주당'(17.5%), '재야'(21.4%), 기타(23.3%)로 나타나고 있어, 민자당은 3당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정당이 지난 선거에서 얻은 지지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민당의 경우도 지난 선거에서보다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는 새로 창당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17.5%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야는 21.4%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가 22.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임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상황에 불만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판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표 II-6-6〉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88년 국회의원 선거	응답자 수	백분율	차기 국회의원 선거	응답자 수	백분율
민주정의당	349	23.4	민주자유당	288	19.3
평화민주당	365	24.4	평화민주당	235	15.7
통일민주당	357	23.9	민주당	261	17.5
신민주공화당	119	8.0			
제야세력	112	7.5	제야세력	319	21.4
기타	142	9.5	기타	333	22.3
무응답	50	3.3	무응답	58	3.9
계	1494 명	100.0%		1494 명	100.0 %

이상의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지난 선거에서 민정당은 대구, 경북에서는 44.7%의 지지를 받았으나, 전라도에서는 겨우 5.6%의 지지를 받았으며, 반대로 평민당은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2.6%의 지지를 받았으나 전라도의 경우는 79.2%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여성은 민정당을 보다 많이 지지하였으며, 통일민주당은 남성표를 더 많이 획득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민정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표 II-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표 행태의 변화예상은 지난 선거때의 민정당 지지자 중 59.7%만 민자당에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28.7%는 민주당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민당의 경우는 지난 선거시 지지자 중 74.5%가 다시 평민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25.1%가 재야세력으로 쏠리고 있다. 그리고 구 통일민주당의 경우는 지지자 중 17.7%만 민자당을 지지하며, 42.9%는 민주당에, 27.6%는 재야세력으로 표의 이동을 예상하고 있다.

<표 II-6-7> 국회의원 선거 투표행태의 변화(예상)

차기선거 88선거	무응답	민자당	평민당	민주당	재야세력	기타	계
민정당	6.9	59.7	6.0	28.7	10.7	15.0	23.4(349)
평민당	17.2	5.6	74.5	10.0	25.1	17.4	24.4(365)
통일민주당	17.2	17.7	6.8	42.9	27.6	24.0	23.9(357)
신민주공화당	6.9	10.1	6.8	9.6	6.6	7.2	8.0(119)
재야세력	1.7	1.7	2.6	3.8	23.5	5.4	7.5(112)
기타	6.9	4.5	2.1	3.8	5.0	28.2	9.5(142)
무응답	43.1	1.7	1.3	1.1	1.6	2.7	3.3(50)
계	3.9 (58)	19.3 (288)	15.7 (235)	17.5 (261)	21.4 (319)	22.3 (333)	100.0% (1494명)

마. 현 정부의 당면과제

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빈부격차의 해소'(60.0%), '치안확보'(18.2%),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17.4%) 및 '청소년 건전 육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의해 지지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약 및 결론

현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는 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물가)정책의 실패와 치안유지의 문제점 및 민주화 추진의 지연으로 전반적인 지지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약 50% 정도가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전개시키느냐에 따라 정부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선택 기준은 '정치적 능력', '개인적 인품', '정책과 공약'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당의 정책과 공약보다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선호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당별 지지도는 민자당의 경우 과거 민정당 때의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대신 민주당과 계야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타에도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상황에 불만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판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당면 과제로서는 '빈부격차의 해소', '치안확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및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7. 국민의 민주의식과 정치제도

(1) 한국의 정치제도와 민주의식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민들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주의 원리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이 정치참여의 결과로 지도자가 선출된다.

즉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국민의 의식에 따라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가 운영된다. 그러므로 국민이 어떤 민주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는냐가 중요하다. 통상이론에 의하면 국민은 민주주의 의식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가지고 있고 지도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설문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인 수준의 질문과 일반적인 민주이론을 응용한 구체적 민주의식을 응답자들에게 물어보았다.

〈표II-7-1〉 일반 민주 이론의 지지도 : 다수결과 소수 존중 *

응답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찬 성	1256	84.0
중 립	92	6.2
반 대	146	9.8
계	1494 명	100.0 %

*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표II-7-1〉에 의하면 거의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민주주의 일반 이론인 '다수결과 소수의견의 존중'에 대한 항목에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일반이론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응용 설문에서 그 지지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표II-7-2〉와 〈표II-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민주주의 이론을 응용하는 측면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보였다. 이것은 다른 설문조사에서 일반국민을 상대로 민주이론을 물어본 결과와 다르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응용적인 민주정치 체제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의례히 양분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Ⅱ-7-2〉

정당운영 중심의 민주정치 제도 *

응답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찬 성	790	52.9
중 립	211	14.1
반 대	488	32.7
무응답	5	.3
계	1494 명	100.0%

* "민주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표II-7-3>

대의 민주정치 제도 *

응답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찬 성	127	8.5
중 립	82	5.5
반 대	1278	85.5
무응답	7	.5
계	1494 명	100.0 %

* "민주정치는 대중의 의사보다 소수 지도자의 의견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

이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은 의하면 비교적 민주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정치의 중심이 되는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즉 "민주주의는 대중의 의사보다 소수 지도자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의 결과를 보면 이를 찬성한 비율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정당정치가 정착되지 못했고 여기서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나라의 민주정치 체제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 설문에 응한 청년층은 우리나라의 정치체제 운영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젊은 층은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과정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민주의를 이해하고 있음에도 일반대중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일반수준의 민주주의에는 모두가 찬성을 보였고 이를 응용한 민주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도에도 일반 대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당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대의정치에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젊은 층은 정당의 이해도가 깊지 못하고 따라서 이러한 정당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나라의 같은 청년층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표 II-7-4>에서 "6.29선언은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크게 기여했다."에 대한 반응에서 보는 바와 같이 6.29선언이 민주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38% 내외였다. 앞으로 젊은층의 민주정치 의식에 대한 고양은 우리나라가 정당정치를 얼마만큼 대의정치를 통해 정착시키느냐는 것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II-7-4〉

6.29선언에 대한 지지도 *

응답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찬 성	466	31.2
중 립	430	28.8
반 대	590	39.5
무응답	8	.5
계	1494 명	100.0 %

* " 6.29선언은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그들의 교육정도, 연령차, 소득수준에서 보았더니 이러한 요인들이 국민의 일반 민주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일반 민주정치 이론에 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응답자들은 모두 80%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대졸자가 중졸자보다는 훨씬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중,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약 10% 정도 대졸자보다 일반이론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낮은 연령일수록 그 지지도가 높았고 나이가 높아질수록, 특히 30대 후반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소득면에서 보아도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민주주의 일반이론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 자세를 함양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II-7-5>에서 볼 수 있다.

<표II-7-5> 사회배경과 민주주의

	교 육			연 령			소 득 (단위:만원)		
	중졸	고졸	대졸	18-25	26-33	34-39	0-29	30-69	70이상
찬 성	80.0	80.7	88.0	85.2	85.2	78.3	78.0	82.9	89.2
중 립	10.0	5.9	5.3	7.0	4.9	6.7	9.0	6.1	3.9
반 대	10.0	13.4	6.7	7.8	9.9	15.0	13.0	11.0	6.9
계	100.0% (130명)	100.0% (622명)	100.0% (732명)	100.0% (703명)	100.0% (535명)	100.0% (254명)	100.0% (245명)	100.0% (721명)	100.0% (436명)

이러한 일반적 민주주의식을 형성함에 있어서 개개인들의 정치경험이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7-6>에 의하면 어렸을 때 친구와 정치토론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주주의 지지율이

높았다. 따라서 국민들이 민주주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성장기에 정치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모와 정치얘기를 나눈다거나, 친구들과 더불어 정치에 관한 토론을 한다던가, 써클활동이나 학급에서 지도자로 뽑혀 친구들을 대표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정치훈련이 민주주의식 고양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이 조사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표II-7-6〉 정치경험과 민주주의식

	계	정치 토론 경험	
		많음	적음
찬 성	84.0	85.6	80.0
중 립	6.2	5.4	8.2
반 대	9.8	9.0	11.8
계	100.0 % (1494명)	100.0 % (1088명)	100.0 % (404명)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민주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정치경험을 충분히 가질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당정치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사회배경과 교육과정, 민주정치 경험을 높여 정당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당정치가 무엇인가를 홍보하는 정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다.

(2) 정치제도에 대한 지지도

정치제도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제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국민들이 선호하는 제도가 각 사회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 제도를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써 국민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치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제도를 발전시키고 제도의 안정과 유지를 시킬수 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정치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체제를 진단하게 된다. 즉, 사회구성원이 살고있는 커뮤니티나 매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선량들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나 또는 그러한 정권들이 면면히 맥을 이어오는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 그 사회의 정치발전과 안정을 논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때에 따라서 달라왔으나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즉, 제 1공화국에서 제 6공화국까지 이어지는 동안 각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달랐으나 대한민국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에도 어떤 제도를 그 정치체제에 영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 내

각책임제, 이원집정제, 지방자치제 등 같은 정치체제에서도 어떤 형태의 정치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지지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것들을 이번 설문에서 알아 보았다. 90년대의 바람직한 정치체제는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표II-7-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70%나 되었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제도가 내각책임제였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제도나 기타 다른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은 약 10%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표II-7-7> 출신지역과 정치제도에 대한 선호도

	계	출신 지역				
		호남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충청	서울, 경기
대통령제	70.3	79.8	71.5	74.4	66.9	68.6
내각책임제	15.3	9.3	13.7	17.4	15.5	17.2
사회, 공산주의제	11.1	9.3	10.5	6.2	13.8	11.9
기 타	3.3	1.6	4.3	2.0	3.8	2.3
계	100.0 % (1494명)	100.0 % (195명)	100.0 % (258명)	100.0 % (197명)	100.0 % (162명)	100.0 % (682명)

90년대의 바람직한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를 출신지역별로 보았더니 주로 호남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서울, 경기지역보다 높았다. 그리고 내각책임제 지지에 있어서는 서울, 경기 지역이나 경북, 대구, 충청 지역이 호남, 부산, 경남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볼때 출신지역이 어떤 정치체도를 선호하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러한 정치성향은 우리나라에서 정치활동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감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표II-7-8〉 정치경험과 정치제도 선호도

	정치에 관심을 처음 가진 시기			대중 매체		
	18세이전	19-25세	26세이후	신문	T.V., 라디오	친구, 이웃
대통령제	67.7	73.5	72.8	72.2	71.5	61.2
내각책임제	15.3	15.2	17.5	14.1	17.1	14.6
사회, 공산주의제	13.7	9.5	3.9	11.6	9.0	15.5
기 타	3.3	1.8	5.8	2.1	2.4	8.7
계	100.0 % (603명)	100.0 % (785명)	100.0 % (106명)	100.0 % (750명)	100.0 % (638명)	100.0 % (106명)

정치제도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개개인의 정치사회화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8>에 의하면 최초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시기가 어렸을 때인지, 나이를 먹어서 인지에 따라서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어렸을 때 최초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그 지지도를 보였으나 26세 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처음 가지기 시작한 사람은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중매체를 주로 접하고 있는냐에 따라서도 정치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설명되고 있었다. 신문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대통령제를 훨씬 선호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정치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기는 했으나 내각책임제나 사회주의제나 공산주의 제도에 대한 선호도도 비교적 다른 매개체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젊은층의 정치사회화가 친구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썬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맞는 것이다.

〈표 II-7-9〉 정치이념과 직업과 정치제도 선호도

	직업				정치이념		
	학생	직장인	주부	교.강사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대통령제	67.6	72.9	69.6	74.7	70.5	73.3	68.4
내각책임제	13.4	16.9	21.0	12.9	20.2	14.8	13.4
사회,공산주의제	15.7	8.4	6.5	10.0	8.3	9.2	14.5
기 타	3.3	1.8	2.9	2.4	1.0	2.7	3.7
계	100.0% (525명)	100.0% (513명)	100.0% (173명)	100.0% (283명)	100.0% (295명)	100.0% (683명)	100.0% (516명)

정치제도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이념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II-7-9〉에 의하면 안정된 직업을 가진 학교의 교, 강사나 직장인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었고 그러한 비율이 학생인 경우에는 낮았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15% 이상이나 되었다. 이러한 것을 정치이념적으로 알아보았더니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었다.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15%),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수적

이거나 중도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보다 지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역시 정치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정치이념에 의해 설명이 되고 또한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정치제도의 선호도가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회배경이나 어렸을 때 부터 배우고 훈련하는 정치경험이 어떤 정치제도를 선호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3) 6공화국 정부에 대한 지지도

6공화국이 민주화실천과 경제의 균등분배, 우리 문화의 창달과 통일 정책 기반 구축을 국정지표로 삼고 1987년에 출발한 이래 국민들의 6공화국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 보았다. 1990년 8월 중순 현재로 6공화국에 대한 지지도는 약 12%였고 반대는 40%였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에서 의견을 유보한 사람이 과반수가 된다는 것은 현 정부가 얼마만큼 정치지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지지와 반대의 의견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반수라는 뜻도 될 것이다.

〈표Ⅱ-7-10〉 출신지역과 6공화국 지지도

	출신 지역					
	계	호남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충청	서울, 경기
지 지	11.2	5.6	12.8	18.4	8.1	11.3
중 립	49.9	32.5	51.4	53.6	49.7	53.8
반 대	38.6	61.9	35.8	28.0	42.2	34.9
계	100.0 % (1494명)	100.0 % (195명)	100.0 % (258명)	100.0 % (197명)	100.0 % (162명)	100.0 % (682명)

6공화국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출신지역별로 본 것이 〈표Ⅱ-7-10〉이다. 대구, 경북지역과 부산, 경남지역이 대체적으로 6공화국을 지지하는 비율이 호남지역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았다. 그리고 반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호남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보다도 약30%가 높았다. 또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국민이 전체 설문자의 50%정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이것은 곧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이 약 과반수 이상이 된다는 것으로서 앞으로 현 정부가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반수의 지지를 접은층으로 부터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6공화국의 지지도를 정치사회화 경험과 관련해서 알아본 것이 〈표Ⅱ-

7-11>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친구의 영향, 사회불의를 보고 또는 국내외 관심사 때문이라는 이유를 중심으로 6공화국 지지도를 알아 보았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친구와 이웃들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구의 영향이 6공화국의 지지도에 크게 작용함을 볼 수 있었다. 최근의 젊은 층의 정치참여가 씨클을 중심으로한 친구들의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친구의 영향에 의해 정부의 지지도가 좌우되고 있음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사회불의나 국내외적 관심이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이러한 정치에 대한 지식에 정부 지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이번 연구조사에서 발견되었다.

〈표Ⅱ-7-11〉

정치경험과 6공화국 지지도

	정치적 관심을 갖는 이유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친구영향	사회불의	대내외문제 관심	뉴스	스포츠	드라마
지지	15.2	11.0	11.6	13.8	10.6	8.8
중립	47.6	44.0	52.1	43.6	53.1	56.3
반대	37.2	45.0	36.3	42.6	36.3	34.9
계	100.0 % (205명)	100.0 % (662명)	100.0 % (627명)	100.0 % (672명)	100.0 % (296명)	100.0 % (526명)

메스컴의 영향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자세 결정에 거의 절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지적된 바가 있다. 특히 텔레비전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나 기존의 정치지식을 확인해 준다는 연구가 서구의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표Ⅱ-7-11〉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국민들의 현정부 지지를 표명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국민의 정치의식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뉴스의 역할이 현정부의 지지도와 관련이 깊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바였지만 역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정치성향이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국민들의 정치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

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국민의 정치자세가 설명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사회배경을 6공화국 지지도와 관련해서 <표II-7-12>에서 알아보았다. 기대한 바대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6공화국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에 연령층이 20대 중반 이하로 내려갈수록 그 지지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에도 세대차가 국민의 정치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종교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대체적으로 불교신자들이 현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불교만큼 높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종교가 정부의 민주화 활동을 평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었다. 종교 역할이 실제로 국민의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와 관련이 있었는가를 알아보았다. 역시 구교와 신교의 경우에 불교보다 현 정부지지도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배경 중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종교별 차이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Ⅱ-7-12〉 사회배경과 6공화국 지지도

	연령			종교			
	18-25세	26-33세	34-39세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지지	9.4	11.6	16.5	9.2	10.8	13.1	10.0
중립	49.2	49.3	53.9	47.8	46.9	52.0	51.3
반대	41.4	39.1	29.6	43.0	42.3	29.9	38.7
계	100.0 % (702명)	100.0 % (536명)	100.0 % (256명)	100.0% (401명)	100.0% (131명)	100.0% (282명)	100.0% (680명)

6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그 지지이유를 알아보았다. 6공화국을 지지한 사람중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른 이유보다 높았다. 그 다음으로 지적된 사항이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화 추진이었다. 이렇게 볼 때 6공화국을 지지하는 이유중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정통성 확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선거를 통한 대통령선출이 그동안 3,4공화국에서 있어왔지만 그것이 간접선거 방식이거나 직접선거이더라도 강력한 정부의 개입에 의한 선거결과에 국민들은 많은 불신감을 느꼈었다. 이러한 선거에 대한 불신감은 이번 6공화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비교적 공평정대하게 직접선거가 이루어졌던 것을 현 정부지지의 큰

지지의 이유로 내세웠다. 따라서 지난 정부가 정통성 확립에 어려웠던 것을 이번 공화국에서 대통령 직접선거를 통해 그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고 볼 수 있었다. 이것이 국민들이 6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표II-7-13>에 나타나 있다. 연령적으로 보았을 때 30대 이후의 젊은 층들이 20대 중반의 유권자들보다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가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선출이라고 말한 수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추진을 이유로 삼은 층도 20대 연령층보다 30대 연령층이 더 많았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서 보더라도 70만원 이상의 월수입 가정이 30만원 이하의 월수입 가정보다 정부 지지율이 높았다. 이들은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에 비중을 크게 두었다. 이 연구에서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 6공화국을 지지하는 이유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표II-7-13> 사회배경과 6공화국의 지지 이유

	계	연 령			경제적 수준		
		18-25	26-33	34-39	상	중	하
민주화	6.0	5.3	5.6	10.2	10.7	5.5	6.2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11.7	10.1	12.0	15.4	17.6	11.1	11.1
무응답	82.3	84.6	82.4	74.4	71.7	83.4	82.7
계	100.0% (1494명)	100.0% (783명)	100.0% (536명)	100.0% (255명)	100.0% (133명)	100.0% (793명)	100.0% (568명)

이번에는 6공화국을 지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았다.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기대한 만큼 민주화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38% 이상이 민주화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로 5공화국과의 단절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어 왔다는데 그 이유를 두었다. 그 외에 문민정치의 미확립이나 선거에서의 국민의 낮은 지지, 광주보상 문제의 미해결 등을 이유로 든 것이 모두 합해 18%였다. 이렇게 볼 때 국민들이 6공화국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화실천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5공화국과의 단절을 미루어 왔다는 것에 그 큰 이유를 들고 있었다.

〈표Ⅱ-7-14〉 정치토론 과 6공화국 반대 이유

	계	스승과의 정치토론		친구와의 정치토론	
		많음	적음	많음	적음
5공과 단절실패	7.9	9.2	6.8	8.2	5.9
민주화실천 미흡	36.9	50.4	38.4	44.8	32.4
부응답	55.2	40.4	54.8	47.0	61.7
계	100.0% (1494명)	100.0% (420명)	100.0% (1074명)	100.0% (1088명)	100.0% (406명)

이러한 젊은층의 6공화국의 반대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표Ⅱ-7-14>에서 알아 보았다. 정치경험 중에서 이웃과 친구와 스승과의 정치토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승과의 정치토론을 통해서 젊은 층의 과반수가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이유로는 민주화 실천의 미흡을 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 정치대화를 많이 한 층이 민주화 실천의 미흡을 통해서 현정부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화 과정에서 정치경험, 특히 친구와 스승과의 정치대화가 젊은 층의 정부에 대한 태도를 설명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나 현정부에 대한 반대보다는 지지하기를 보류하는 층이 과반수 이상이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에 대해 반대하기보다는 지지를 보류하는 그룹이 과반수가 된다는 것은 현 정부가 어떠한 지도력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느냐에 따라 젊은층의 과반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의 지지와 유지는 선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선거에 의한 정통성 획득이 현 정부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통성이 제고되지 않은 정권과의 연계를 속히 청산하는 것이 현 정부가 젊은 계층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권의 유지와 지지는 선거와 밀접하므로 선거방법과 제도개선이 현 정부가 주력해야 할 사항임도 제시하고 있었다.

(4) 지방자치제 실시와 선거방법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 기관과의 권력분산에 대해 최근
에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젊은 층에게 물어본 결과
80% 이상이 지방행정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
화하는 것보다 좋다는 의견이었다. 이것을 출신지역별로 고찰해 보았다.
〈표II-7-15〉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젊은층이
서울, 경기, 충청, 대구, 경북 지역이 부산, 경남 지역과 호남지역 보다
거의 5-10%가 많았다. 지방행정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대다수의 응답자 중에서도 호남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의 젊은층이 거
의 90%에 가깝게 지지를 보였다. 따라서 지역차가 중앙정부와 지방행정
간의 권한분산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표II-7-15〉 출신지역과 지방자치제 실시

	계	출신 지역					
		호남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충청	서울, 경기	
중앙정부 권한강화	16.7	10.3	12.9	17.7	19.4	19.1	
지방행정기구강화	83.3	89.7	87.1	82.3	80.6	80.9	
계	100.0 % (1494명)	100.0 % (210명)	100.0 % (277명)	100.0 % (211명)	100.0 % (175명)	100.0 % (621명)	

〈표II-7-16〉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권한강화와 지방행정기구 권한강화에 대한 의견을 연령별, 교육정도별, 소득별로 고찰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들은 35세 이후의 사람들이었고, 교육에서는 대졸보다는 중졸이 중앙정부 권한강화를 지지했다. 소득별에서도 중앙정부 권한강화를 지지하는 층은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행정기구 권한을 강화하는데 찬성하는 층은 20대 초반의 젊은 층으로 교육정도는 대학교 재학이나 졸업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찬성한 층은 대학재학이나 졸업자내지는 나이가 비교적 젊은층에서 그 지지가 컸다. 또한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하자는 의견은 부산, 경남지역과 호남지역으로 비교적 야세가 강한 지역에서 었다.

〈표II-7-16〉 사회배경과 지방자치제 실시

	연 령			교육 정도			소 득		
	18-25	26-33	34-39	중졸	고졸	대졸	29만이하	30-69	70만이상
중앙정부 권한강화	15.5	15.3	22.5	35.1	19.7	11.7	20.9	18.1	12.6
지방행정기 구권한강화	84.5	84.7	77.5	64.9	80.3	88.3	79.1	81.9	87.4
계	100.0% (653명)	100.0% (546명)	100.0% (295명)	100.0% (159명)	100.0% (591명)	100.0% (744명)	100.0% (284명)	100.0% (731명)	100.0% (479명)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선거를 함에 있어서 입후보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표II-7-16>에서 알아 보았다. 통상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지방자치제 선거는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거나 지역특성을 살린 지방유지 중심의 공천으로 지방자치제 선거에 입후보자가 출마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현상은 달랐다. 정당중심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그룹이 전체 응답자의 25%에 불과했다. 반면에 지방특색을 살려 유지중심의 공천을 찬성한 사람이 38%에 가까웠다. 더 나아가 직능대표 및 기타 단체중심으로 공천을 해야 된다는데 거의 과반수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선거 실시에 정당중심의 정치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실정과 유사했다. 즉 정당중심으로 입후보자를 공천하기보다 지방중심의 개인이나 단체의 직능대표를 지방자치제 선거의 입후보자로 내놓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지방정치가 아직도 정당중심의 공천이 어렵다는 현실을 말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출신지역별로 보았더니 <표II-7-17>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단체직능별 중심으로 공천을 해야 된다는 데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보인 것은 부산, 경남 지역이었다. 또한 지방유지를 중심으로한 공천에 강한 지지를 보인 지역 또한 부산, 경남지역과 경북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때, 거주지역별로 지방자치제 선거방법의 실시에 대한 지지도가 다를 수 있었다.

〈표II-7-17〉 정치경험과 출신지역과 지방자치제 선거방법

	계	거주지역					정치경험	
		호남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충청 충청	서울 경기	자주	가끔
정당중심의 공천	25.6	26.5	16.5	29.8	29.6	26.7	26.9	22.1
지방유지중 심으로공천	27.4	27.5	30.5	29.3	25.0	26.3	24.9	34.3
직능대표및 기타단체별 로 공천	47.0	46.0	53.0	40.9	45.4	47.0	48.2	43.6
계	100.0% (1494명)	100.0% (207명)	100.0% (260명)	100.0% (100명)	100.0% (170명)	100.0% (658명)	100.0% (1073명)	100.0% (421명)

이러한 지방자치제 선거방법이 국민 개인의 정치경향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와 정치토론을 비교적 자주 하는 층에서 정당중심으로의 공천을 해야 한다는데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참여를 시도하는 층일수록 정당중심의 공천이 지방자치제에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와 정치토론을 자주 하는 그룹이 정당중심의 공천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층으로서 친구와 정치토론을 자주 하는 그룹은 지방자치제 선거방법에서 직능대표 및 기타 단체중심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데 거의 과반수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국민이 정치토론

에 참가하고 도시에 살면 최소한 계층별 내지는 정당별 중심의 입후보자 공천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유지 중심으로 공천을 해야된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시골에 살거나 친구와의 정치토론을 별로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는 야세가 강한 지역이나 연령적으로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층이 지지하고 있었고 그 선거방법에 있어서 계층별, 정당별, 그룹별 중심으로 공천하는데 찬성하는 그룹이 도시에 살고 친구나 이웃과의 정치토론 경험이 자주 있는 그룹인 것으로 이 조사에서 나타났다.

(5) 정당에 대한 지지도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식구조를 대변하는 정강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이 이 정강정책이나 정당 지도자를 통해 정치참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선거에서 선택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대변하게 되고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당의 역할이 증대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물어보았다. 우선 6공화국의 두 야당과 여당이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물었다. 3당통합에 대한 일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젊은층이

20%를 웃돌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층은 60% 정도였다. 그외에 무응답 그룹도 15%나 되었다. 3당통합에 대한 지지도를 출신지역별로 조사했다. 그랬더니 3당통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호남지역으로 80%이상이었다. 반면에 부산, 경남 지역은 3당통합이 잘못된 것으로 말한 그룹이 과반수를 상회했다. 이렇게 볼 때 3당통합에 대한 지지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야당으로 남게된 평민당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지역은 3당통합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고 반면에 경남지역에서의 3당통합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호남지역보다 높았다. 또한 충청, 서울, 경기 지역은 3당통합이 잘못된 일이라고 과반수 이상이 응답했으나 호남지역보다 훨씬 약했다. <표II 7-18>은 정당정치의 지역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II 7-18> 출신지역과 3당통합의 지지도

	계	출신 지역				
		호남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충청	서울, 경기
잘한 일이다	22.2	7.6	24.5	35.2	17.4	22.9
잘못한 일이다	62.7	83.8	56.4	43.4	65.8	63.8
계	100.0 % (1494명)	100.0 % (197명)	100.0 % (257명)	100.0 % (197명)	100.0 % (161명)	100.0 % (682명)

정당에 대한 지지는 개인의 사회배경과 정치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연령별, 경제수준별로 3당통합의 지지수준을 알아보았다. <표Ⅱ-7-19>에 의하면 젊은 층일수록 3당통합이 잘못된 일로 보는 견해가 높은 연령일수록 높았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보다 3당통합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보이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3당통합에 대한 지지는 나이가 많고 경제수준이 높은 층에서 나이가 적고 경제수준이 낮은 층보다 지지도가 높음을 볼 수 있었다.

<표Ⅱ-7-19> 사회경험과 3당통합 지지도

	연 령			경 제 수 준			자주보는 T.V.프로그램		
	18세미만	19-25	26-37	상	중	하	뉴스	스포츠	드라마
잘한 일	20.5	21.9	33.7	32.3	23.6	18.0	24.7	20.5	20.0
잘못한 일	63.8	63.6	49.0	52.3	60.8	67.8	65.2	61.1	60.3
계	100.0% (605명)	100.0% (784명)	100.0% (105명)	100.0% (131명)	100.0% (794명)	100.0% (569명)	100.0% (671명)	100.0% (295명)	100.0% (524명)

3당통합이 잘못되었다는 60%이상의 응답자들 중에 그 원인을 물어보

았다. <II-7-20>에 의하면 여당이 너무 비대해져서 반대하는 경향이 22%이상이었다.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20%였다. 야당이 여당과 야합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15%를 상회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기 때문에 반대 한다는 의견도 10%나 되었다. 이렇게 볼 때 3당통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는 여당의 지나친 비대를 염려하는 층에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II-7-20> 3당통합이 잘못된 이유

원 인	응답자 수	백분율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286	19.9
야당이 여당과 야합했기 때문	234	16.3
여당이 너무 비대해져서	322	22.4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	71	4.9
어쩐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66	4.6
기타(무응답 포함)	458	31.9
계	1494 명	100.0 %

(6) 국민의 희망도와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

앞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와 정부에 대한 젊은층의 반응과 지지도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젊은 계층이 우리나라의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표Ⅱ-7-21>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거나 최소한 지금보다는 낫다고 예상하는 그룹이 60%를 상회했다. 반면에 지금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룹도 10%나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의 젊은 층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7-21>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

	응답자 수	백분율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임	287	19.2
지금보다 다소 살기 좋을 것임	631	42.2
지금과 별 차이 없을 것임	311	20.8
지금보다 다소 나빠질 것임	112	7.5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임	48	3.3
기 타(무응답 포함)	185	7.0
계	1494명	100.0 %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젊은 세대에서 높았고 이것은 북방정

책에서도 기대가 매우 높았다. 현 정부에서 활발히 추진해 온 북방정책은 이제 모든 계층과 세대간 구별없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젊은층들의 북방정책에 대한 기대는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데 거의 40%가 찬성을 했고 현재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합하여 과반수가 넘었다. 보류해야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2%미만이였다. 이렇게 볼 때 젊은 층의 응답자들은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북방정책의 필요성을 높이 인지하고 있었다. <표II-7-22>에서 보면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룹과 현재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북방정책을 비교적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표II-7-22> 북방정책에 대한 기대

	응답자 수	백분율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542	36.3
현재대로 좋다	146	9.8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	698	46.7
보류해야 한다	26	1.7
기타(무응답 포함)	82	5.5
계	1494명	100.0 %

북방정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남북통일이다. 이에 대한 기대를 물어 보았다. <표Ⅲ-7-23>에 의하면 통일이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거의 40%에 가까웠다. 따라서 서기 200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믿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고 북방정책에 대한 지지와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가 10-15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젊은층에게는 정부가 해주어야 할 일들이 많다. 미래지향적 정책을 활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우리나라 젊은층들에게 미래지향적 정책을 정부가 좀 더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번 설문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Ⅲ-7-23>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

	응답자 수	백분율
통일은 5 년이내에 이루어질 것임	116	7.8
통일은 10년이내에 이루어질 것임	327	21.9
통일은 15년이내에 이루어질 것임	147	9.8
통일은 20년이내에 이루어질 것임	175	11.7
통일은 20년이후에 이루어질 것임	235	15.7
기타(무응답 포함)	494	33.1
계	1494 명	100.0 %

요약 및 결론

1.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민주 의식이 일반 대중보다는 높았다. 일반적인 민주이론에도 그 지지도가 높았고 구체적 응용 측면에서의 민주 의식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다. 그러나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의정치에 대한 이해도는 적었다. 이러한 민주 의식은 성장기의 정치경험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친구와의 접촉과 부모와의 정치대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젊은이들에게 정당정치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홍보하는 정치프로그램이 필요함이 이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2.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에 대한 선호도에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70%이상이었다. 그리고 내각책임제를 선호하는 사람은 15%내외였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그룹도 10%내외였다. 출신지역별로 보니까 대통령제를 더욱 선호하는 지역이 영.호남 지역이었다. 직업별로도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중도적인 정치이념을 가졌거나 20대 후반의 사람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보수적인 주부계층의 20대 후반의 사람들이 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역 출신의 젊은이들은 내각제에 대해 타지역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3. 현정부를 지지하는 비율은 10%를 조금 넘고 있었고 반대하는 그룹은 40%에 가까웠다. 나머지는 반대도 지지도 않았다. 이것은 현 정부가 정치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호남과 충청지역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다.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종교별 차이가 현 정부에 대한 젊은이들의 지지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그룹은 나이가 30대 후반에 경제수준이 상층에 있는 젊은이들이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중 제일 중요한 것이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정권의 정통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었다. 현 정부를 반대하는 이유중 가장 크게 꼽고 있는 이유는 민주화실천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4. 지방자치제 실시를 원하는 층은 거의 80%나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야세가 강한 호남과 경남, 부산지역 출신들이 더 원했다. 지방자치제 선거방법에서는 정당공천보다 지방유지 중심이나 직능단체 중심의 공천을 바라는 사람이 70%나 넘었다.

5. 3당통합이 잘못되었다는 젊은층이 60%이상이었고 그 주요한 이유는 여당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당간의 결합에 대한 반대보다 여,야 정치구도를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가면 젊은층에 크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젊은이들의 민주주의 태도가 높았던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내용이었다.

6.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우리의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가 차 있었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북방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북통일도 서기 2000년 대에는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이들의 이러한 희망에 찬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력과 통치력이 기대되고 있음이 이번 설문조사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Ⅲ. 연구결과와 정책제안

1. 주요 분석 결과

가. 개요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의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에 사용된 자료는 설문조사로 수집되어 통계 분석되었다. 청년들의 사회의식 구조는 개인의 가치관, 여성문제, 교육문제, 경제, 사회, 정치, 문화문제로 나뉘어 각각의 내용이 분석되었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에 대한 그들의 반응도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나타난 젊은 이들의 의식구조를 사회배경과 사회심리학적 요소들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자료는 1990년 8월 중에 전국의 18세부터 39세까지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전국 인구분포표를 사용하여 전국을 150개 집락으로 나누어 총 15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엄격한 조사방법 이론에 의해 과학적으로 면접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분석했다.

위의 방법에 의해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나. 청소년의 가치관

청년들은 20대 초반이나 중반이 30대 후반보다 개인주의와 개방적 사회가치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나이가 젊을수록 퇴폐와 향락추구의 문화에 빠져들고 약물복용의 경험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연령층 일수록 가부장적 역할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적 혼돈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의 극복을 위해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문화를 활성화하고 건전 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

여성문제 인식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여성유권자들이 정치참여를 할 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다. 직업의식의 경우에도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강조되고 있었다. 지도력에 있어서는 남녀평등 의식이 점증되고 있으며 정치가 남성의 고유영역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앞으로 여성정치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라. 청소년 비행과 교육정책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관한 의견에 있어서는 청소년 비행의 주요원인은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풍토와 부모의 무관심이나 과잉보호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 및 탈선 원인은 단일 요인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원인과 장기간의 누적된 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제벌에 대한 인식은 제벌은 경우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리고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재수생문제는 그 발생의 절대적인 원인은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져야만 출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한 재수생은 계속적으로 누적

될 수밖에 없다. 재수생 누적의 해소방안으로는 대학의 증원을 높이는 방안도 있으나 이것은 고급인력 수급의 한계와 대학의 시설확충 및 교수 확보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가능한 방법내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 및 윤리과목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공공교육 기관을 통해 중점적으로 교육해야만 할 것이다. 청소년 연구원에서 청소년 교과과정도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연수와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이 분야의 문제점 발굴에 계속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 경제현안과 노사관계

경제현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청년층은 10년후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훨씬 살기좋은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지나치게 자신 위주로 단기적으로 모든 문제점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높아서 사회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 의지를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 '노사분규의 책임' 등에 대한 태도는 국가경제보다는 먼저 개인의 가계를 염려하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원하고, 사용자보다는 근로자의 입장을 두둔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학력,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바. 북방정책과 남북통일

외교, 안보, 통일정책에 대한 태도로는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한의 군사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로 하며,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고 있었다.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면서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 후의 국가형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통일정책과 북방정책이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정책은 적극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나 북방정책에는 신중을 보다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고 있어 어느 정도 모순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대외정책에서 너무 외세에 적극적인 접근을 하다보면 국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사. 현 정부의 정책

정부에 대한 태도는 현재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북방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물가)정책의 실패와 민주화의 추진 및 치안 유지의 문제점 때문에 잘한 것이 없다는 지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 대한 태도는 지지보다 반대의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가 태도의 유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정당의 지지도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시 민정, 민주, 평민당이

거의 비슷하게 지지를 받았으나 3당통합 이후 민자당은 민정당 때보다 지
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평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새로 참
당된 민주당이나 제야에는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교차분석을 통해서 보면 구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의 표가 민주당으로 가고
있으며, 평민당에 대한 지지는 제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민주당, 제야 및 기타에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은 현재의 정치판도에
심한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정치구도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빈부격차의 해소', '치안 확
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및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지적되고 있
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변할
것이다.

아. 정치제도

민주의식과 정치제도에 대한 태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구
간에 권한분산에 대하여 절대다수가 지방행정기구의 권한을 확대 강화
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제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선
거의 입후보와 공천에 있어서는 직능대표제 등 정치 이외의 사회단체
중심의 공천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방유지 중심의
공천, 정당 중심의 공천의 순서로 나타났다.

민정, 민주, 공화의 3당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여당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거대여당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

고 90년대를 이끄는 바람직한 정치지도라는 ‘정치적 역량이 있는 새로운 인물’을 절대 다수가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끝으로 90년대의 바람직한 정치체제는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권력구조의 변화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책 제안

가. 민주주의의 고양

1)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적극 지지하지만,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다른나라의 젊은이들에 비해 그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참여, 특히 선거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적극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은 어린시절부터 사회화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하루의 대부분을 친구나 직장동료 또는 이웃과 보내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권위에 대한 이해도와 지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체제나 지도자 또는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예상한 것보다 떨어지고 있었다. 사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질서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의사표시나 창의적인 사고력이 조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질서의 준수와 권위의 존중을 중요시하는 교육이 이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청소년 연구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지원하는 정책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통일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10년 후인 서기 2000년 때에는 통일이 달성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젊은이들의 과반수가 가지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 않아도 북방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김일성의 우상화가 곧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과반수인 점은 또한 다수의 청년들은 건전한 통일관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건전한 기대와 노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공산권 연수 프로그램 및 강연회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이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 민족자존의 틀을 마련

민주의식의 고양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전통문화의 이해를 젊은이들은 들고 있었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청년들은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설문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재 문화부가 추진하는 지방문화와 전통문화의 발굴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근대화에 공헌한 민족지도자상 발굴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방된지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가 민주화와 산업화가 되었음에도 우리에게는 미국의 링컨, 카네기, 제퍼슨 같이 우리의 근대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지도자로서 추앙하는 위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기성세대가 민족자존의 틀을 마련하는데 소홀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는 선현들을 찾아 이들의 공적과 위대함을 부각시킴으로써 어린 시절 부터 본받고자 하는 올바른 지도자의 상을 심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 여성의 역할 증진

여성들의 의식이 점점 남성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이 설문 조사에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되는 여성들이 서서히 독립적인 사회의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정치, 사회, 경제 구도의 새로운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여성과 여타의 소외 그룹을 위한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임용과 공천할당제 실시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는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제도에 있어서 여성에게 유리한 대통령 중심제라든지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중.대 선거구를 통해 여성의 당선 확률을 높여 주는 일, 비례대표제나 임명제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할당제를 실시하는 과제가 있다. 또 공무원 임용에서 양보다 질우선의 여성직위를 보장해주는 일을 통해 여성유권자를 체제발전과 안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여성정책의 입안과 실천이 필요하다.

마. 정치제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고 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10%에 머물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10% 내외였고, 지지를 유보한 그룹이 과반수였다. 또한 지방으로의 정치권한의 분산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제 선거를 실시

함에 있어 지방의 직능대표제를 통한 공천을 정당공천보다 선호했다. 그리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로 선거를 통한 정통성의제고를 들었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제 - 지방자치 - 계층별 공천 - 직접선거라는 도식이 나온다. 즉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체제는 영.미의 정치체제보다 미국식의 대통령중심제와 지방분권이 현재의 우리 실정에 맞는 정치체제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내각책임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조속한 정치적인 안정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바. 개인의 발전을 국가의 발전과 연결짓는 경제체제의 확립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높은 수준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본 조사는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청년 의식상의 특성은 우리의 경제에 중요한 함축성을 가진다. 각각의 사회구성원들은 우선 자신의 발전과 복지를 목표로 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되, 이러한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틀과 고리를 구비하는 일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기본방식이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경제의 틀과 고리가 와해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투기나 부정부패를 통하여 땀흘리지도 아니하고 큰 돈 버는 사람이 많은 사회, 대학을 졸업해야만 일정수준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 사회, 남의 불행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혼자만 잘 사는 사람이 많은 사회,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사회, 이것이 곧 우리사회의 실상이고 이러한 여건속에서는 개인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지워지는 고리가 와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나 누구도 땀흘리지 아니하고는 잘 살 수 없으며, 혼자서만 잘 살려고는 생각지도 못하며, 누구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일은 1) 학력간의 임금격차 해소, 2) 사회전반에 걸친 빈부의 격차 감소, 3) 투기 등을 통한 불로소득의 기회배제, 4)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웃도 함께 잘 살아야만 된다는 공동체 의식의 고양, 5) 빈곤층이나 노년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한 고용 세제복지 정보관리 면에서의 정책추진이 적극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전한 경제의식이 사회전반에 효과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정책노력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각 계층에서 자발적으로 결성 추진되는 시민운동의 뒷받침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환경보호운동, 여성운동, 소비자 운동, 전전학생운동, 도덕심 고양운동 등의 시민운동을 지원 강화 하되, 이러한 시민운동들은 각 이익집단의 편익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나의 번영이 곧 이웃과 사회의 번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의 틀에 대한 인식을 적극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의 정착

급속한 경제성장과 서구 물질문명의 무비판적 유입의 결과로 우리의 청년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웃과 친구들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은 어릴 적부터 남과의 만남의 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토대를 두어야 할 것인데,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여러가지로 미흡한 사회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은 건전한 만남의 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단순한 즐거움으로써 끝나는 여가보다는 내일 더욱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축적의 방편으로서의 여가, 자연 또는 이웃과의 접촉을 통하여 마음을 순화하고 여유를 가지게 하는 방편으로서의 여가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아래 청소년 여가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체육의 진흥을 통하여 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 체육시설의 증설을 통하여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증대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관과 인생관의 개발을 적극 도모함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I. 국내 문헌

1. 구자현, "방황하는 청소년," 국가발전과 청소년(서울: 매영사,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 1977).
2. 권문택, 김영철, "소년범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문교부, 사회과학계 2, 1978).
3. 김광웅편, 한국의 선거정치학(서울: 나남, 1990).
4. 김기석, 정애자, "청소년 비행의 감별척도에 관한 연구," 행동과학 연구3 (고대 행동과학연구소, 1979).
5. 대한상공회의소편, 근로자 의식구조 조사보고(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980).
6. 박용옥, 한국 근대 여성 운동사 연구(서울: 정화인쇄, 1984).
7. 박용현,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의식개혁의 필요성과 실천방향 (서울: 사회정화위원회, 1982).
8. 박용현, 강우철, 이관용, 임채완, 현대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1980).
9.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한국 근로자와 관리자의 직업의식과 노사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정책연구(제 1권, 제 3호, 1979).
10. 유기형, "청소년의 집단비행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부산대 사회과학대학, 제 1권, 제 2호, 1982).
1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소년 환경세미나 참고자료(1984).
12. 조정원, 현종민, "한국 대학생의 현실참여에 관한 연구," 전환기의 한국 정치(제 7회 합동 학술대회 논문집, 1987년 7월, 한국정치학회), pp. 169-180.
13. 체육부편, 청소년백서(서울: 체육부, 1990).

14. 한국 정치학회편,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서울: 한국정치학회, 1989).
15. 한국 정치학회편,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통일 방안(서울: 을유문화사, 1990).
16. 현종민, "정당은 과연 이데올로기가 필요한가: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과 대중참여,"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통일방안 (한국정치학회편, 을유문화사, 1990), pp. 95-101.
17. 현종민, "선거인의 제편성과 투표: 1987년도 대통령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23집 2호(1989), pp.209-226; 현종민, "대학생의 정치성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 3집(1985년 12월), pp.35-54.
18. 현종민,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 형성과 갈등구조," 대학교육, 통권 44호 (1990년 3월), pp.89-97; Herbert McClosky, "Consensus and Ideology in American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8 (June, 1964), pp. 361-382.

II. 외국 문헌

1. Beck, Paul Allen, Jere W. Bruner and L. Douglas Bobson, Political Socialization Across the Genera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75).
2. Blalock, Jr., Hubert M., Social Statistics(New York: McGraw-Hill, 1972).
3. Darcy, Robert, Susan Welch and Janet Clark, Women, Elections and Representation(New York: Longman, 1987).
4. David Easton and Jack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Origins of Political Legitimacy (New York: McGraw-Hill Co., 1969), pp. 111-315.
5. Edwards, Allen E., Statistical Method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2).
6. Gabriel A. Almond and Verba Sidney,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63).

7. Healey, Joseph F., Statistics: A Tool for Social Research(Belmont, Calif.: Wadsworth Publishing Co., 1984).
8. Hyman, Herbert H., Political Socialization: A Study in the Psychology of Political Behavior(New York: The Free Press, 1959).
9. Hyun, Chong-Min, K.Kim, Robert Darcy and Y.H.Park, " The Benevolent Leader and Democratic Institutions: A Study of Korean Children's View of Politics,"
10.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V(Winter, 1987-1988), pp.47-60.
11. M. Kent Jennings and Richard G. Niemi, Generations and Politics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48-75.

부록 Ⅱ

1990년대 청년정책 방향 연구 설문지

알리는 말씀

본 조사는 1990년대의 청년 정책방향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학술목적에만 사용됩니다. 각 개인에 관한 사항은 밖에 공개되지 않으며 그 약속은 꼭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원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0년 7월 20일

한국청소년연구원 드림

1 2 3 4 5

조사 지역: 시(도) 구(군) 동(면) 리

조사원 이름:

조사 일시: 1990년 8월 일

1. 먼저 사회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
는 번호에 0표를 해주십시오.

	강한 찬성	약한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 님	약한 반대	강한 반대
1) "친구끼리 어울려서 음식점에 갔을때 자기가 먹은 만큼씩 각자 돈을 내는 것이 좋다.".....	1	2	3	4	5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	1	2	3	4	5
3) "누구나 원하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1	2	3	4	5
4) "여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	1	2	3	4	5
5) "남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	1	2	3	4	5
6) "학생들이 시위나 기타 집단적 방법으 로 현실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다.".....	1	2	3	4	5
7) "다른 후보자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자기 와 가까운 경우,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 로 뽑아주어야 한다.".....	1	2	3	4	5
8)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소수의견존중의 원 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2	3	4	5
9) "민주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야 한다.".....	1	2	3	4	5
10) "민주정치는 대중의 의사보다 소수 지도 자의 의견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	1	2	3	4	5
11) "민주주의는 각 나라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	2	3	4	5
12) "6.29선언은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	2	3	4	5
13) "임수경양의 방북은 국가와 민족을 위 하여 필요한 일이었다.".....	1	2	3	4	5

- 14) " 초, 중, 고등학교 교사도 노동자이다." 1 2 3 4 5
- 15) 귀하가 생각하기에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은 다음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1) 경제력 (2) 학력 (3) 인품(성격포함)
 (4) 용모(건강포함) (5) 종교 (6) 가문(혈통 및 사회적 배경)
 (7) 기타

16) 다음의 여러가지 여가선용의 방법 중에서 귀하가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셋을 골라 1, 2, 3으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 (01) 낚시() (02) 등산() (03) 운동경기관람()
 (04) 운동하기() (05) 영화, 연극감상() (06) 음악감상()
 (07) 독서() (08) 원예() (09) 화투()
 (10) 전자오락() (11) 장기, 바둑() (12) 당구()
 (13) 디스코() (14) 음주() (15) 악기연주()
 (16) 라디오, TV 시청() (17) 박물관, 전람회 관람() (18) 쇼핑()
 (19) 견학이나 답사() (20) 기타

2. 다음은 여성문제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찬성	반대	모르겠다
1) "남편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부인은 독자적으로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2)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은 양립할 수 없다.".....	1	2	3
3) "여성은 남성보다 지도력이 부족하다.".....	1	2	3
4) "직장에서 상사가 여성이라도 모든 면에서 불편하지 않다.".....	1	2	3
5) "남성정치가가 여성권익을 더 잘 대변하기는 어렵다.".....	1	2	3
6) "정치는 남성의 고유영역이므로 여성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7) "우리나라의 여성은 사회에서 남성보다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1	2	3

8)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한 지위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불평등관계를 해결해야 합니까?

- | | |
|---------------------|----------------------|
| (1) 다수의 여성정치가를 선출해서 | (2) 활발한 여성단체활동을 통해서 |
| (3) 정부의 법개정을 통해서 | (4) 정당의 공천제도 개선을 통해서 |
| (5) 기타: | (6) 모르겠다. |
-

3. 다음은 정치제도와 정부형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구 간의 권한분산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귀하의 의견은?

- (1)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 현재대로가 좋다.
 (3) 지방행정기구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4) 모르겠다.
-

2) 지방자치제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입후보자는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1) 여,야가 나뉘어 정당 중심으로 공천함이 좋다.
 (2) 지방특색을 살려 유지중심으로 공천함이 좋다.
 (3) 직능대표제 등 정치이외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천함이 좋다.
 (4) 기타
-

3) 민정 민주 공화당의 3당 통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 | |
|----------------|-----------------|
| (1) 아주 잘한 일이다. | (2) 대체로 잘한 일이다. |
| (3) 잘못된 일이다. | (4) 아주 잘못된 일이다. |
| (5) 잘 모르겠다. | |
-

※ 문항 3)에서 "(1)아주 잘한 일이다." 또는 "(2)대체로 잘한 일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문항 5)로 넘어가시오.

4) 3당통합이 잘못된 일이었다면 그 이유는?

- (1)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2) 야당이 여당과 야합했기 때문에
 (3) 여당이 너무 비대해져서
 (4)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5) 어쩐지 맘에 내키지 않아서
 (6) 기타
-

3.9

5)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강력한 통치력
- (2) 국민여론 존중
- (3) 도덕성(청렴, 정직)
- (4) 탁월한 외교력
- (5) 다방면의 지식
- (6) 건강 및 외모
- (7) 기타

4.0

6) 90년대를 이끄는 바람직한 정치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 (1) 현재 부각되어 있는 기성정치인
- (2) 군인이나 직업관료
- (3) 정치적 역량이 있는 새로운 인물
- (4) 기타

4.1

7) 90년대의 바람직한 정치체제는 ?

- (1)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을 직접 책임지는 대통령제
- (2)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책임지는 내각 책임제
- (3)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사회협동체제 중심의 사회주의체제
- (4) 동구라파나 소련같은 수정 공산주의체제
- (5) 기타

4. 다음은 북방, 외교안보, 통일, 주한미군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4.2

1) 주한미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1) 지금 당장 철수되어야 한다.
- (2) 남,북한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
- (3) 남,북한 군사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필요하다.
- (4)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절대로 필요하다.

4.3

2)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1)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 (2) 현재대로 좋다.
- (3)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
- (4) 보류해야 한다.
- (5) 모르겠다.

44

- 4 5

46

- 46

?

- ?

2

- 2

9

- [illegible]

5.0

2) 현 정부가 가장 잘 못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
|-----------|--------------|
| (1) 민주화추진 | (2) 경제(물가)정책 |
| (3) 치안유지 | (4) 북방정책 |
| (5) 복지정책 | (6) 기타 |

5.1

3) 공화국 정부에 대한 귀하의 지지도는?

- | | |
|-----------------|-----------|
| (1)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 (2) 지지한다. |
| (3) 그저 그렇다. | (4) 반대한다. |
| (5)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 |

5.2

* 문항 3)에서 (4), (5)항에 응답한 경우에는 문항 5)로 가시오.

4) 만일 3)항에서 "(1)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2) 지지한다."로 대답했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1) 민주화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
| (2)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
| (3) 대통령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기 때문에 |
| (4)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
| (5) 기타 |

5.3

5) 만일 3)항에서 "(4) 반대한다.", "(5)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로 대답했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1) 5공과 단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 (2) 아직도 문민정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
| (3) 선거에서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
| (4) 민주화의 실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
| (5) 광주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
| (6) 기타 |

5.4

6) 귀하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정책과 공약 | (2) 개인적 인품 |
| (3) 소속 정당 | (4) 학력과 경력 |
| (5) 정치적 능력 | (6) 출신지역 |
| (7) 기타 | |

5.5

7)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귀하는 어느 정당 또는 집단을 지지하였습니까?

- | | | |
|------------|-----------|-----------|
| (1) 민주정의당 | (2) 평화민주당 | (3) 통일민주당 |
| (4) 신민주공화당 | (5) 제야세력 | (6) 기타 |

8) 90년대에는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 민주자유당 (2) 평화민주당 (3) 민주당 (4) 재야세력
(5) 기타
-

9) 현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개만 고르시오.

- (01) 빈부의 격차해소 (02) 경제성장 (03) 국가안보
(04) 평화통일 (05) 민족일체감 조성 (06) 인권보장
(07) 민주화 (08) 치안확보 (09) 교통문제
(10) 환경공해 (11) 공직자의 부정부패 (12) 청소년 전전육성

6. 다음은 교육, 사회, 복지, 경제 일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청소년비행 및 탈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학교주변의 유종접객업소 및 악덕업자
(2)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풍토
(3) 부모의 무관심이나 과잉보호
(4) 불건전한 교우관계
(5) 여가활용장소 부족
(6) T.V., 비디오, 잡지, 스포츠신문 등 대중매체의 영향
(7) 정부의 청소년 정책 미비
(8) 기타
-

2) 교사의 체벌(때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체벌은 좋은 교육방법이다.
(2) 체벌은 경우에 따라서 해야한다.
(3) 체벌은 가능한 한 가하지 말아야 한다.
(4) 체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패습이다.
(5) 잘 모르겠다.
-

3) 지금과 같이 제수생의 누적현상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져야만 출세할 수 있어서
(2) 부모의 요청때문에
(3) 전공학과의 공부를 하고 싶어서
(4) 대학에 진학하면 징집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5) 제수 이외의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6) 기타
-

6.6

4) 재수생의 누적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대학의 정원을 재수생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늘린다.
- (2) 병역제도를 개선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대학입시에 관계없이 4년간 징집연기 기회를 부여하여 진로를 결정하게 한다.
- (3)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격차를 줄인다.
- (4) 전문기술대학 정원을 많이 늘린다.
- (5)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취업지도와 직장알선을 강화한다.
- (6) 중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도록 진로지도를 강화한다.
- (7)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까지로 제한한다.
- (8) 기타

6.7

5)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본 과목
- (2)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 및 윤리과목
- (3) 체육 및 대교리에이션 활동
- (4) 취업 기술 교육 과목
- (5) 기타

6.8

6) 지금부터 10년 후에 우리사회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 (2) 지금 보다는 다소 살기 좋을 것이다.
- (3) 지금에 비해 별로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 (4) 지금 보다는 다소 나빠질 것이다.
- (5) 지금 보다는 훨씬 나빠질 것이다.
- (6) 모르겠다.

6.9

7)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
|-------------------|------------|
| (1) 물가상승 | (2) 과소비 |
| (3) 수출부진 | (4) 부동산 투기 |
| (5) 외국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 (6) 노사분규 |
| (7) 경제성장속도의 둔화 | (8) 학생대모 |

7.0

8) 한국경제의 국제화와 더불어 정부는 단계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방속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 |
|-------------|-----------|
| (1) 너무 빠르다. | (2) 빠르다. |
| (3) 알맞다. | (4) 느리다. |
| (5) 너무 느리다. | (6) 모르겠다. |

9)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다음중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 (1) 기업경영의 성과로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기업활동에 재투자 해야한다.
- (2) 기업경영의 성과로 발생하는 이익의 2/3은 기업활동에, 1/3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 (3) 기업경영의 성과로 발생하는 이익의 1/2은 기업활동에, 1/2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 (4) 기업경영의 성과로 발생하는 이익의 1/3은 기업활동에, 2/3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 (5) 기업경영의 성과로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10) 노동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노사분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1) 노동자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 (2) 노동자의 요구가 약간 지나치다.
- (3)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 (4)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
- (5)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아주 미흡하다.

11) 귀하는 약물(히로뽕, 마파초, 본드, 합성제 기타)을 사용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12) 사용한 적이 있다면 어떤 약물을 사용했습니까?

7. 다음의 질문은 사회화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정치에 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매우 많다 (2) 약간 있다 (3) 없다 (4) 전혀 없다 (5) 모르겠다

※ 문항 2)는 문항 1)에서 "(1) 매우 많다" 또는 "(2) 약간 있다"에 응답한 경우에만 답하십시오.

2) 만약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어릴적부터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2) 국내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 (3) 사회불의 때문에 (4)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참여한 결과로
- (5) 가족, 친지의 영향으로 (6) 친구나 선후배때문에
- (7)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관심 때문에
- (8) 기타

77

3) 귀하의 성장기에 부모님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 (1) 아주 많았다 (2)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5) 아주 적었다 (6) 모르겠다

78

4) 귀하의 친구들과 정치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자주 했다 (2) 가끔 했다 (3) 별로 안했다 (4) 전혀 안했다

79

5) 귀하는 가족들과 정치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자주 했다 (2) 가끔 했다 (3) 별로 안했다 (4) 전혀 안했다

80

6) 귀하는 학교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님과 정치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자주 했다 (2) 가끔 했다 (3) 별로 안했다 (4) 전혀 안했다

81

7) 귀하가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대체로 몇살때였습니까?

만 _____ 세

82

8) 가장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1) 뉴스 또는 시사해설, 토론 (2) 스포츠 (3) 홈 드라마
(4) 국내외 영화 (5) 갖가지 쇼 (6) 만화
(7) 기타 _____

83

9) 가장 자주 보는 신문기사는 무엇입니까?

- (1) 정치면 (2) 사회면 (3) 경제면
(4) 스포츠면 (5) 만화, 오락 (6) 문화종교면

84

10) 요즘 친구나 이웃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자주 합니까?

- (1) 가정, 남편, 자녀 (2) 물가, 부동산 (3) 건강, 레크레이션
(4) 정치문제 (5) 사회문제 (6) 개인사업 (7) 기타 _____

85

11) 평소 정치에 관한 지식이나 자료를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대중매체는 다음중 어느 것입니까?

- (1)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2) 정부간행 자료에서
(3) 신문, 잡지에서 (4)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5) 기타 _____

8. 다음의 질문은 귀하의 사회배경을 묻는 문항입니다. 맞는 곳에 0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1) 남

(2) 여

2) 지금 만 몇세입니까?

만 _____ 세

3)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광주 (05) 대전 (06) 인천
(07) 경기도 (08) 강원도 (0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2) 전라남도 (13)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15) 제주도 (16) 외국

4) 혼인유무는?

(1) 미혼 (2) 결혼 (3) 기타

5) 학력은?

(1) 무학 또는 국민학교 졸 (2) 중학교 중퇴 혹은 중졸
(3) 고등학교 중퇴 혹은 고졸 (4) 대학교 재학, 중퇴 혹은 대졸
(5) 대학원생 또는 그 이상

6) 현재 직업과 직장 지위는? 학생인 경우(재학생포함)에는 직업란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표시하고, 직장지위란에는 학년을 표기 하시오.

직업:

직장지위:

7) 귀하의 가계 월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1) 10만원 미만 (2) 10-30만원 미만 (3) 30-50만원 미만
(4) 50-70만원 미만 (5) 70-100만원 미만 (6) 100만원 이상

8) 당신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1)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기독교(교회)
(3) 가톨릭(성당)
(4) 불교(절)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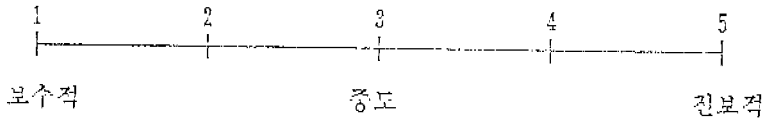
95

10) 당신의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잘 사는 편이다.
- (2) 중간보다 잘 사는 편이다.
- (3) 중간 정도이다.
- (4) 중간보다 못사는 편이다.
- (5) 아주 못사는 편이다.

96

11) 귀하의 정치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할 때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또는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해당란에 0표를 하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Ⅲ

각 변수별 일원 도수분포표

V1 조사지역

지역명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서울	1	366	24.5	24.5	24.5
부산	2	128	8.6	8.6	33.1
대구	3	85	5.7	5.7	38.8
인천	4	51	3.4	3.4	42.2
광주	5	39	2.6	2.6	44.8
경기	6	196	13.1	13.1	57.9
강원	7	70	4.7	4.7	62.6
충북	8	52	3.5	3.5	66.1
충남	9	109	7.3	7.3	73.4
전북	10	80	5.4	5.4	78.7
전남	11	78	5.2	5.2	83.9
경북	12	111	7.4	7.4	91.4
경남	13	129	8.6	8.6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2 친구끼리 어울려서 음식점에 갔을때 자기가 먹은 만큼씩 각자 돈을 내는 것이 좋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2	.1	.1	.1
강한 찬성	1	413	27.6	27.6	27.8
약한 찬성	2	502	33.6	33.6	61.4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280	18.4	18.4	79.8
약한 반대	4	238	15.9	15.9	95.7
강한 반대	5	139	9.3	9.3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3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	.1	.1	.1
강한 찬성	1	191	12.8	12.8	12.9
약한 찬성	2	293	19.6	19.6	32.5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489	26.8	26.8	59.2
약한 반대	4	284	19.0	19.0	78.2
강한 반대	5	325	21.8	21.8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4 누구나 원하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 주어야 한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2	.1	.1	.1
강한 찬성	1	591	39.6	39.6	39.7
약한 찬성	2	298	19.9	19.9	59.6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174	11.6	11.6	71.3
약한 찬성	4	210	14.1	14.1	85.3
강한 찬성	5	210	14.7	14.7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5 여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2	.1	.1	.1
강한 찬성	1	665	44.5	44.5	44.6
약한 찬성	2	313	21.0	21.0	65.6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257	17.2	17.2	82.8
약한 반대	4	172	11.5	11.5	94.3
강한 반대	5	85	5.7	5.7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6 남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4	.3	.3	.3
강한 찬성	1	446	29.9	29.9	30.1
약한 찬성	2	319	21.4	21.4	51.5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364	24.4	24.4	75.8
약한 반대	4	213	14.3	14.3	90.1
강한 반대	5	148	9.9	9.9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7 학생들이 시위나 기타 집단적 방법으로 현실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2	.1	.1	.1
강한 찬성	1	265	17.7	17.7	17.9
약한 찬성	2	469	31.4	31.4	49.3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247	16.5	16.5	65.8
약한 반대	4	284	19.0	19.0	84.8
강한 반대	5	227	15.2	15.2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8 다른 후보자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자기와 가까운 경우,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어야 한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4	.3	.3	.3
강한 찬성	1	33	2.2	2.2	2.5
약한 찬성	2	79	5.3	5.3	7.8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95	6.4	6.4	14.1
약한 반대	4	237	15.9	15.9	30.0
강한 반대	5	1046	70.0	70.0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9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소수의견존중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강한 찬성	1	924	61.8	61.8	61.8
약한 찬성	2	332	22.2	22.2	84.1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92	6.2	6.2	90.2
약한 반대	4	70	4.7	4.7	94.9
강한 반대	5	76	5.1	5.1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10 민주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5	.3	.3	.3
강한 찬성	1	396	26.5	26.5	26.8
약한 찬성	2	394	26.4	26.4	53.2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211	14.1	14.1	67.3
약한 반대	4	215	14.4	14.4	81.7
강한 반대	5	273	18.3	18.3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11 민주정치는 대중의 의사보다 소수 지도자의 의견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7	.5	.5	.5
강한 찬성	1	59	3.9	3.9	4.4
약한 찬성	2	68	4.6	4.6	9.0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82	5.5	5.5	14.5
약한 반대	4	254	17.0	17.0	31.5
강한 반대	5	1024	68.5	68.5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12 민주주의는 각 나라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6	.4	.4	.4
강한 찬성	1	647	43.3	43.3	43.7
약한 찬성	2	557	37.3	37.3	81.0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118	7.9	7.9	88.9
약한 반대	4	89	6.0	6.0	94.8
강한 반대	5	77	5.2	5.2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13 6.29선언은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8	.5	.5	.5
강한 찬성	1	114	7.6	7.6	8.2
약한 찬성	2	352	23.6	23.6	31.7
찬성도 반대도 이님	3	430	28.8	28.8	60.5
약한 반대	4	282	18.9	18.9	79.4
강한 반대	5	308	20.6	20.6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14 임수경향의 방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8	.5	.5	.5
강한 찬성	1	225	15.1	15.1	15.6
약한 찬성	2	333	22.3	22.3	37.9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362	24.2	24.2	62.1
약한 반대	4	259	17.3	17.3	79.5
강한 반대	5	307	20.5	20.5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15 초, 중, 고등학교 교사도 노동자이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	.2	.2	.2
강한 찬성	1	341	22.8	22.8	23.0
약한 찬성	2	355	23.8	23.8	46.8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255	17.1	17.1	63.9
약한 반대	4	243	16.3	16.3	80.1
강한 반대	5	297	19.9	19.9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16 귀하가 생각하기에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은 다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	.2	.2	.2
경제력	1	135	9.0	9.0	9.2
학력	2	25	1.7	1.7	10.9
인품(성격포함)	3	1106	74.0	74.0	84.9
용모(건강포함)	4	88	5.9	5.9	90.8
종교	5	33	2.2	2.2	93.0
가문(혈통 및 사회적배경)	6	43	2.9	2.9	95.9
기타	7	61	4.1	4.1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17 다음의 여러가지 여가선용의 방법 중에서 귀하가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셋을 골라 1,2,3으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제 1 선호도)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9	.6	.6	.6
낚시	1	179	12.8	12.8	12.6
등산	2	202	13.5	13.5	26.1
운동 경기 관람	3	67	4.5	4.5	30.6
운동하기	4	208	13.9	13.9	44.5
영화, 연극 감상	5	202	13.5	13.5	58.0
음악 감상	6	149	10.0	10.0	68.0
독서	7	178	11.9	11.9	79.9
원예	8	24	1.6	1.6	81.5
화투	9	20	1.3	1.3	82.9
전자오락	10	10	.7	.7	83.5
장기, 마둑	11	42	2.8	2.8	86.3
당구	12	26	1.7	1.7	88.1
디스코	13	6	.4	.4	88.5
음주	14	19	1.3	1.3	89.8
악기 연주	15	18	1.2	1.2	91.0
라디오, TV 시청	16	102	6.8	6.8	97.8
박물관, 전람회 관람	17	2	.1	.1	97.9
쇼핑	18	9	.6	.6	98.5
견학이나 답사	19	17	1.1	1.1	99.7
기타	20	5	.3	.3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04				
무효 응답	9				

V18 위 질문의 제 2 선호도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2	.8	.8	.8
남시	1	42	2.8	2.8	3.6
등산	2	132	8.8	8.8	12.4
운동 경기 관람	3	78	5.2	5.2	17.7
운동하기	4	105	7.0	7.0	24.7
영화, 연극 감상	5	206	13.8	13.8	38.5
음악 감상	6	184	12.3	12.3	50.8
독서	7	166	11.1	11.1	61.9
원예	8	50	3.3	3.3	65.3
화투	9	28	1.9	1.9	67.1
전자 오락	10	35	2.3	2.3	69.5
장기, 바둑	11	97	6.5	6.5	76.0
당구	12	70	4.7	4.7	80.7
디스코	13	21	1.4	1.4	82.1
음주	14	45	3.0	3.0	85.1
악기 연주	15	29	1.9	1.9	87.0
라디오, TV 시청	16	118	7.9	7.9	94.9
박물관, 전람회 관람	17	15	1.0	1.0	95.9
쇼핑	18	42	2.8	2.8	98.7
견학이나 답사	19	17	1.1	1.1	99.9
기타	20	2	.1	.1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19 위 질문의 제 3 선택도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6	1.1	1.1	1.1
낚시	1	35	2.3	2.3	3.4
등산	2	65	4.4	4.4	7.8
운동 경기 관람	3	66	4.4	4.4	12.2
운동하기	4	79	5.3	5.3	17.5
영화, 연극 감상	5	93	6.2	6.2	23.7
음악 감상	6	146	9.8	9.8	33.5
독서	7	131	8.8	8.8	42.2
원예	8	33	2.2	2.2	44.4
화부	9	44	2.9	2.9	47.4
전자 오락	10	23	1.9	1.9	49.3
장기, 바둑	11	67	4.5	4.5	53.7
당구	12	72	4.8	4.8	58.6
디스코	13	28	1.9	1.9	60.4
음주	14	64	4.3	4.3	64.7
악기 연주	15	73	4.9	4.9	69.6
라디오, TV 시청	16	226	15.1	15.1	84.7
박물관, 전람회 관람	17	30	2.0	2.0	86.7
쇼핑	18	123	8.2	8.2	95.0
전학이나 답사	19	54	3.6	3.6	98.6
기타	20	21	1.4	1.4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20 남편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부인은 독자적으로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	.2	.2	.2
찬성	1	140	9.4	9.4	9.6
반대	2	1266	84.7	84.7	94.3
모르겠다	3	85	5.7	5.7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21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	.1	.1	.1
찬성	1	311	20.8	20.8	20.9
반대	2	1039	69.5	69.5	90.4
모르겠다	3	143	9.6	9.6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22 여성은 남성보다 지도력이 부족하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4	.3	.3	.3
찬성	1	527	35.3	35.3	35.5
반대	2	769	51.5	51.5	87.0
모르겠다	3	194	13.0	13.0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23 직장에서 상사가 여성이라도 모든 면에서 불편하지 않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5	.3	.3	.3
찬성	1	651	43.6	43.6	43.9
반대	2	490	32.8	32.8	76.7
모르겠다	3	348	23.3	23.3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24 남성정치가가 여성권익을 더 잘 대변하기는 어렵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6	.4	.4	.4
찬성	1	769	51.5	51.5	51.9
반대	2	491	26.8	26.8	78.7
모르겠다	3	318	21.3	21.3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25 정치는 남성의 고유영역이므로 여성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5	.3	.3	.3
찬성	1	129	8.6	8.6	8.9
반대	2	1294	86.6	86.6	95.5
모르겠다	3	67	4.5	4.5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26 우리나라의 여성은 사회에서 남성보다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9	.6	.6	.6
찬성	1	1148	76.9	76.9	77.4
반대	2	235	15.7	15.7	93.2
모르겠다	3	102	6.8	6.8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27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한 지위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불평등관계를 해결해야 하나?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4	.9	.9	.9
다수의 여성정치가의 선출	1	101	6.8	6.8	7.7
활발한 여성단체활동	2	737	49.3	49.3	57.0
정부의 법개정	3	327	21.9	21.9	78.9
정당의 공천제도 개선	4	111	7.4	7.4	86.3
기다	5	118	7.9	7.9	94.2
모르겠다	6	85	5.8	5.8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28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구 간의 권한 분산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	.2	.2	.2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	1	136	8.7	8.7	8.9
현재대로가 좋다	2	89	6.0	6.0	14.9
지방행정기구 권한을 더욱 강화	3	1096	73.4	73.4	88.2
모르겠다	4	176	11.8	11.8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29 지방자치제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입후보자는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9	1.3	1.3	1.3
여,야가 나뉘어 정당중심의 공천	1	360	24.1	24.1	25.4
지방특색을 살려 유지중심의 공천	2	335	25.8	25.8	51.1
직능대표제등 정치이외의 사회	3	660	44.2	44.2	95.3
단체 중심의 공천	4	70	4.7	4.7	100.0
기다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30 민정 민주 공화당의 3당 통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	.1	.1	.1
아주 잘한 일이다	1	49	3.3	3.3	3.3
대체로 잘한 일이다	2	282	18.9	18.9	22.2
잘못한 일이다	3	421	28.2	28.2	50.4
아주 잘못된 일이다	4	515	34.5	34.5	84.9
잘 모르겠다	5	226	15.1	15.1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 문항 3)에서 "(1)아주 잘한 일이다" 또는 "(2)대체로 잘한 일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문항 5)로 넘어가시오.

V31 3당 통합이 잘못된 일이었다면 그 이유는?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93	26.3	26.3	26.3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1	297	19.9	19.9	46.2
야당이 여당과 야합했기 때문에	2	242	16.2	16.2	62.4
여당이 너무 비대해져서	3	334	22.4	22.4	84.7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4	72	4.8	4.8	89.6
어쩔지 맘에 내키지 않아서	5	66	4.4	4.4	94.0
기타	6	90	6.0	6.0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32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7	1.1	1.1	1.1
강력한 통치력	1	339	22.7	22.7	23.8
국민 여론 존중	2	731	48.9	48.9	72.8
도덕성(청렴, 정직)	3	314	21.0	21.0	93.8
탁월한 외교력	4	30	2.0	2.0	95.8
다방면의 지식	5	43	2.9	2.9	98.7
건강 및 외모	6	1	.1	.1	98.7
기타	7	10	1.3	1.3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33 90년대를 이끄는 바람직한 정치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7	.5	.5	.5
현재 부각되고 있는 기성정치인	1	102	6.8	6.8	7.3
군인이나 직업관료	2	25	1.7	1.7	9.0
정치적역량이 있는 새로운 인물	3	1295	86.7	96.7	95.6
기타	4	65	4.4	4.4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34 90년대의 바람직한 정치체제는?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9	.6	.6	.6
대통령제	1	1056	70.7	70.7	71.3
내각책임제	2	229	15.3	15.3	86.6
사회주의체제	3	149	10.0	10.0	96.6
수정 공산주의체제	4	11	.7	.7	97.3
기타	5	40	2.7	2.7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35 주한미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	.2	.2	.2
지금 당장 철수	1	119	8.0	8.0	8.2
단계적 철수	2	552	36.9	36.9	45.1
남,북한 군사균형이 이루어 질때까지는 필요	3	614	41.1	41.1	86.2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절대로 필요	4	206	13.8	13.8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36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8	.5	.5	.5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1	758	50.7	50.7	51.3
현재대로 좋다	2	118	7.4	7.4	58.6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	3	549	36.7	36.7	95.4
보류해야 한다	4	28	1.9	1.9	97.3
모르겠다	5	41	2.7	2.7	100.0
유효 응답	1494	합 계	1494	100.0	100.0
무효 응답	0				

V37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2	.1	.1	.1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심	1	689	46.1	46.1	46.3
사회주의 체제 중심	2	25	1.7	1.7	47.9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절충형	3	250	16.7	16.7	64.7
민족자존중심의 새로운 체제	4	461	30.9	30.9	95.5
통일만된다면 어떤 체제도 무관	5	48	3.2	3.2	98.7
기타	6	19	1.3	1.3	100.0
유효 응답	1494	합 계	1494	100.0	100.0
무효 응답	0				

V38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6	.4	.4	.4
5년 이내	1	116	7.8	7.8	8.2
10년 이내	2	327	21.9	21.9	30.1
15년 이내	3	147	9.8	9.8	39.9
20년 이내	4	175	11.7	11.7	51.6
20년 이후	5	235	15.7	15.7	67.3
모르겠다	6	488	32.7	32.7	100.0
유효 응답	1494	합 계	1494	100.0	100.0
무효 응답	0				

V39 남북통일에 가장 저해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2	.8	.8	.8
김일성의 폐쇄정책	1	652	48.6	48.6	44.4
한국정부의 미온적, 비현실적 정책	2	263	17.6	17.6	62.0
주한미군	3	45	3.0	3.0	65.1
한반도 주변 4강의 미온적 태도	4	288	13.9	13.9	79.0
남, 북한 국민들의 자기체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열망	5	253	16.9	16.9	95.9
기타	6	61	4.1	4.1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40 우리의 국방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9	.6	.6	.6
점차 축소해야 한다	1	262	17.5	17.5	18.1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339	22.7	22.7	40.8
점차 증강해야 한다	3	192	12.9	12.9	53.7
북한의 국방력과 맞추어 증감	4	589	34.1	34.1	87.8
주변강대국의 추세를 보고 결정	5	183	12.2	12.2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4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소, 대중공, 대동구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8	.7	.7	.7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1	342	36.3	36.3	36.9
현재대로 좋다	2	146	9.8	9.8	46.7
현재보다 신중함이 좋다	3	698	46.7	46.7	93.4
보류해야 한다	4	26	1.7	1.7	95.2
모르겠다	5	72	4.8	4.8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42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44	2.9	2.9	2.9
민주화추진	1	211	14.1	14.1	17.1
경제(물가)정책	2	30	2.0	2.0	19.1
치안유지	3	63	4.2	4.2	23.3
복합정책	4	541	36.2	36.2	59.5
복지정책	5	97	6.5	6.5	66.0
잘한 것이 없다	6	508	34.0	34.0	100.0
유효 응답	1494	합 계	1494	100.0	100.0
		무효 응답	0		

V43 현 정부가 가장 잘 못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5	.3	.3	.3
민주화추진	1	240	16.3	16.3	16.6
경제(물가)정책	2	899	60.2	60.2	76.8
치안유지	3	186	12.4	12.4	89.2
복합정책	4	20	1.3	1.3	90.6
복지정책	5	43	2.9	2.9	93.4
기타	6	98	6.6	6.6	100.0
유효 응답	1494	합 계	1494	100.0	100.0
		무효 응답	0		

V44 6공화국 정부에 대한 귀하의 지지도는?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4	.3	.3	.3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1	30	2.0	2.0	2.3
지지한다	2	148	9.4	9.4	11.6
그저 그렇다	3	746	49.9	49.9	61.6
반대한다	4	369	24.7	24.7	86.3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5	205	13.7	13.7	100.0
유효 응답	1494	합 계	1494	100.0	100.0
		무효 응답	0		

** 문항 3)에서 (4), (5)항에 응답한 경우에는 문항 5)로 가시오.

V45 만일 4)항에서 "(1)절대적으로 지지한다.", "(2)지지한다."로 대답했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197	88.1	88.1	88.1
민주화가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1	46	3.1	3.1	88.2
평화적 정권교체가 되었으므로	2	47	3.1	3.1	86.3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선출	3	128	8.8	8.8	94.4
국민으로부터의 많은 지지	4	54	3.6	3.6	98.0
기타	5	38	2.8	2.8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46 만일 4)항에서 "(4)반대한다.", "(5)절대적으로 반대한다."로 대답했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762	51.0	51.0	51.0
5공과의 단절 실패	1	113	7.6	7.6	58.6
아직까지 문민정치 미확립	2	99	6.6	6.6	65.2
선거에서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	3	45	3.0	3.0	68.2
민주화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4	389	26.0	26.0	94.2
광주보상문제의 미해결	5	16	1.1	1.1	95.3
기타	6	78	4.7	4.7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47 귀하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6	.4	.4	.4
정책과 공약	1	177	11.8	11.8	12.2
개인적 인품	2	229	15.3	15.3	27.6
소속 정당	3	33	2.2	2.2	29.8
학력과 경력	4	27	1.8	1.8	31.6
정치적 능력	5	975	65.3	65.3	96.9
출신지역	6	12	.8	.8	97.7
기타	7	35	2.3	2.3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48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귀하는 어느 정당 또는 집단을 지지하였습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58	3.3	3.3	3.3
민주정의당	1	349	23.4	23.4	26.7
평화민주당	2	365	24.4	24.4	51.1
통일민주당	3	357	23.9	23.9	75.0
신민주공화당	4	119	8.0	8.0	83.0
재야세력	5	112	7.5	7.5	90.5
기타	6	142	9.5	9.5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49 98년대에는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58	3.9	3.9	3.9
민주자유당	1	288	19.3	19.3	23.2
평화민주당	2	235	15.7	15.7	38.9
민주당	3	261	17.5	17.5	56.4
재야세력	4	319	21.4	21.4	77.7
기타	5	333	22.3	22.3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50 현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개만 고르시오. (제 1선택)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9	.6	.6	.6
빈부의 격차 해소	1	896	68.0	68.0	68.6
경제성장	2	223	14.9	14.9	75.5
국가안보	3	35	2.3	2.3	77.8
평화통일	4	91	6.1	6.1	83.9
민족일체감 조성	5	42	2.8	2.8	86.7
인권보장	6	58	3.3	3.3	90.1
민주화	7	59	3.3	3.3	93.4
치안확보	8	49	3.3	3.3	95.7
교통문제	9	20	1.2	1.3	98.1
환경공해	10	15	1.0	1.0	99.1
공직자의 부정부패	11	7	.5	.5	99.5
청소년 전전육성	12	7	.5	.5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51 현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개만 고르시오. (제 2선택)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5	2.3	2.3	2.3
빈부의 격차 해소	1	28	1.3	1.3	3.7
경제성장	2	186	12.4	12.4	16.1
국가안보	3	72	4.8	4.8	21.0
평화통일	4	198	13.3	13.3	34.3
민족일체감 조성	5	110	7.4	7.4	41.6
인권보장	6	143	9.6	9.6	51.2
민주화	7	286	13.3	13.3	65.9
치안확보	8	272	13.2	13.2	83.2
교통문제	9	109	7.3	7.3	90.5
환경공해	10	74	5.0	5.0	95.4
공직자의 부정부패	11	55	3.7	3.7	99.1
청소년 전전육성	12	13	.9	.9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52 현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개만 고르시오. (제 3선택)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9	2.6	2.6	2.6
빈부의 격차 해소	1	22	1.5	1.5	4.1
경제성장	2	14	.9	.9	5.0
국가안보	3	20	1.3	1.3	6.4
평화통일	4	44	2.9	2.9	9.3
민족일체감 조성	5	23	1.5	1.5	10.8
인권보장	6	65	4.4	4.4	15.2
민주화	7	220	14.7	14.7	29.9
치안확보	8	199	13.3	13.3	43.2
교통문제	9	127	8.5	8.5	51.7
환경공해	10	176	11.8	11.8	63.5
공직자의 부정부패	11	260	17.4	17.4	80.9
청소년 건전육성	12	285	19.1	19.1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53 청소년비행 및 탈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	.1	.1	.1
학교주변 유흥업소 및 악덕업자	1	170	11.4	11.4	11.4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풍토	2	446	29.9	29.9	41.3
부모의 무관심이나 과잉보호	3	304	20.3	20.3	61.6
불건강한 교우관계	4	72	4.8	4.8	66.5
여가활동장소 부족	5	72	4.8	4.8	71.3
대중매체의 영향	6	268	17.9	17.9	89.2
정부의 청소년 정책 미비	7	131	8.8	8.8	98.0
기타	8	30	2.0	2.0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54 교사의 체벌(때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	.1	.1	.1
좋은 교육방법이다	1	99	6.0	6.0	6.1
경우에 따라서 해야 한다	2	939	62.9	62.9	68.9
가능한 한 가하지 말아야 한다	3	365	24.4	24.4	93.4
절대 있어서는 안될 폐습이다	4	91	5.4	5.4	98.8
모르겠다	5	18	1.2	1.2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55 지금과 같이 재수생의 누적현상이 발생하는 주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2	.1	.1	.1
대학졸업학력을 가져야 출세하므로	1	1175	78.6	78.6	78.8
부모의 요청때문에	2	126	8.4	8.4	87.2
전공학과와 공부할 하고 싶어서	3	30	2.0	2.0	89.2
대학에 진학하면 징집연기가 가능하므로	4	15	1.0	1.0	90.2
재수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5	182	6.8	6.8	97.1
기타	6	44	2.9	2.9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56 재수생의 누적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5	.3	.3	.3
대학정원을 해결될 때까지 늘린다	1	39	2.0	2.0	2.3
고졸자에게도 대입시와 상관없이	2	66	4.4	4.4	6.8
4년간 징집연기 기회를 부여	3	717	48.0	48.0	54.8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줄임	4	207	13.9	13.9	68.6
전문기술대학 정원을 많이 늘림	5	341	22.8	22.8	91.4
고졸자에게 취업지도와 직장알선 강화	6	59	3.9	3.9	95.4
중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많이	7	18	1.2	1.2	96.6
진학하도록 진로지도 강화	8	51	3.4	3.4	100.0
대학지원의 기회를 2번까지로 제한	9				
기타	1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57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6	.4	.4	.4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본 과목	1	94	6.3	6.3	6.7
리성교육을 위한 도덕 및 윤리과목	2	876	58.6	58.6	65.3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3	202	13.5	13.5	78.8
취업기술 교육과목	4	276	18.5	18.5	97.3
기타	5	40	2.7	2.7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58 지금부터 10년 후에 우리사회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2	.1	.1	.1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1	287	19.2	19.2	19.3
지금보다 다소 살기 좋을 것이다	2	631	42.2	42.2	61.6
지금에 비해 별로 좋아지지지도 나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3	311	20.8	20.8	82.4
지금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4	112	7.5	7.5	89.9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5	48	3.2	3.2	93.1
모르겠다	6	103	6.9	6.9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59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6	.4	.4	.4
물가상승	1	444	29.7	29.7	30.1
과소비	2	404	32.4	32.4	62.5
수출부진	3	57	3.8	3.8	66.3
부동산 투기	4	257	17.2	17.2	83.5
외국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5	122	8.2	8.2	91.7
노사분규	6	54	3.6	3.6	95.3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	7	54	3.6	3.6	98.9
학생데모	8	16	1.1	1.1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60 한국 경제의 국제화와 더불어 정부는 단계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방 속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7	.5	.5	.5
너무 빠르다	1	393	26.3	26.3	26.8
빠르다	2	534	42.4	42.4	69.2
알맞다	3	184	12.3	12.3	81.5
느리다	4	79	5.3	5.3	86.8
너무 느리다	5	31	2.1	2.1	88.9
모르겠다	6	166	11.1	11.1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61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다음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9	1.3	1.3	1.3
기업경쟁 성과의 이익은 전액 기업활동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1	74	5.0	5.0	6.2
이익의 3/2는 기업활동, 2/1은 근로자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2	532	35.6	35.6	41.8
이익의 2/1은 기업활동, 2/1은 근로자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3	546	36.5	36.5	78.4
이익의 3/1은 기업활동, 3/2는 근로자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4	255	17.1	17.1	95.4
이익의 전액을 근로자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5	68	4.6	4.6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62 노동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노사분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응답 내용	응답 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	.2	.2	.2
노동자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1	98	6.6	6.6	6.8
노동자의 요구가 약간 지나치다	2	154	10.3	10.3	17.1
노동자, 사용자 모두에 문제가 있다	3	753	50.4	50.4	67.5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	4	286	19.1	19.1	86.6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아주 미흡하다	5	286	13.4	13.4	100.0
합 계		1494	100.0	100.0	
유효 응답	1494	무효 응답	0		

V63 귀하는 약물(히로뽕, 데마초, 본드, 각성제, 기타)을 사용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6	.4	.4	.4
있다	1	63	4.2	4.2	4.6
없다	2	1425	95.4	95.4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64 사용한 약물이 있다면 어떤 약물을 사용했습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442	96.5	96.5	96.5
히로뽕	1	4	.3	.3	96.8
데마초	2	22	1.5	1.5	98.3
본드	3	13	.9	.9	99.1
각성제	4	4	.3	.3	99.4
기타	5	9	.6	.6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65 귀하의 정치에 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	.1	.1	.1
매우 많다	1	261	17.5	17.5	17.5
약간 있다	2	1001	67.0	67.0	84.5
없다	3	171	11.4	11.4	96.0
전혀 없다	4	21	1.4	1.4	97.4
모르겠다	5	20	2.6	2.6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 문항 2)는 문항 1)에서 "(1)매우 많다" 또는 "(2) 약간 있다"에 응답한
경우에만 답하시오.

V66 만약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76	12.0	12.0	12.0
어릴적부터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1	41	2.7	2.7	14.7
국내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2	568	38.0	38.0	52.7
사회 발전 때문에	3	468	31.3	31.3	84.1
정당, 정치단체에 참여한 결과로	4	38	2.5	2.5	86.6
가족, 친지의 영향으로	5	44	2.9	2.9	89.6
친구나 선배때문에	6	28	1.9	1.9	91.5
학교 선생님, 교수님의 관심으로	7	31	2.1	2.1	93.6
기타	8	96	6.4	6.4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67 귀하의 성장기에 부모님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2	.1	.1	.1
아주 많았다	1	99	6.6	6.6	6.8
대체로 많은 편이었다	2	389	26.7	26.7	33.5
그저 그렇다	3	511	34.2	34.2	67.7
대체로 적은 편이었다	4	234	15.7	15.7	83.3
아주 적었다	5	167	11.2	11.2	94.5
모르겠다	6	82	5.5	5.5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68 귀하의 친구들과 정치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2	.1	.1	.1
자주 했다	1	247	16.5	16.5	16.7
가끔 했다	2	341	50.3	50.3	73.0
별로 안했다	3	351	23.5	23.5	96.5
전혀 안했다	4	53	3.5	3.5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69 귀하는 가족들과 정치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	.2	.2	.2
자주 했다	1	93	6.2	6.2	6.4
가끔 했다	2	627	42.0	42.0	48.4
별로 안했다	3	619	41.4	41.4	89.8
전혀 안했다	4	152	10.2	10.2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70 귀하는 학교선생님이나 대학교수님과 정치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8	1.2	1.2	1.2
자주 했다	1	53	3.5	3.5	4.9
가끔 했다	2	358	24.0	24.0	28.7
별로 안했다	3	583	39.0	39.0	67.7
전혀 안했다	4	482	32.3	32.3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71 귀하가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몇살때였습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0	101	6.8	6.8	6.8
	6	1	.1	.1	6.9
	7	1	.1	.1	7.0
	8	1	.1	.1	7.0
	10	1	.1	.1	7.1
	11	1	.1	.1	7.7
	12	9	.6	.6	8.4
	13	11	.7	.7	9.8
	14	21	1.4	1.4	13.3
	15	52	3.5	3.5	18.3
	16	74	5.0	5.0	23.7
	17	156	10.4	10.4	48.6
	18	177	11.8	11.8	51.9
	19	169	11.3	11.3	74.2
	20	333	22.3	22.3	79.7
	21	83	5.6	5.6	82.7
	22	45	3.0	3.0	86.4
	23	55	3.7	3.7	88.9
	24	37	2.5	2.5	93.8
	25	62	4.1	4.1	94.0
	26	15	1.0	1.0	95.1
	27	16	1.1	1.1	95.6
	28	8	.5	.5	95.1
	29	7	.5	.5	98.9
	30	41	2.7	2.7	98.9
	31	1	.1	.1	99.3
	32	5	.3	.3	99.3
	33	1	.1	.1	99.5
	34	3	.2	.2	99.9
	35	0	.4	.4	100.0
	37	1	.1	.1	
	합계	1404	100.0	100.0	
유효응답	1404	무효응답	0		

V72 가장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7	.5	.5	.5
뉴스 또는 시사해설, 토론	1	669	44.8	44.8	45.2
스포츠	2	261	17.5	17.5	62.7
홈 드라마	3	204	13.7	13.7	76.4
국내외 영화	4	192	12.9	12.9	89.2
갯가지 쇼	5	101	6.8	6.8	96.0
만화	6	27	1.8	1.8	97.8
기타	7	33	2.2	2.2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73 가장 자주보는 신문기사는?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8	.5	.5	.5
정치면	1	285	19.1	19.1	19.6
사회면	2	558	43.5	43.5	63.1
경제면	3	160	11.3	11.3	74.4
스포츠면	4	234	15.7	15.7	90.1
문화·소락	5	65	4.4	4.4	94.4
문화종교면	6	32	5.6	5.6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74 요즘 친구나 이웃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자주 합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4	.9	.9	.9
가정, 남편, 자녀	1	170	11.4	11.4	12.3
물가, 부동산	2	358	24.0	24.0	36.3
건강, 레크레이션	3	215	14.4	14.4	50.7
정치문제	4	84	5.6	5.6	56.3
사회문제	5	360	24.1	24.1	80.4
개인사업	6	142	9.5	9.5	89.9
기타	7	151	10.1	10.1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75 평소 정치지식이나 자료를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대중매체는?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4	.3	.3	.3
친구나 이웃	1	70	4.7	4.7	5.0
정부간행 자료	2	15	1.0	1.0	6.0
신문, 잡지	3	730	49.3	49.3	55.2
T.V. 라디오	4	630	42.8	42.8	98.0
기타	5	39	2.6	2.6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76 성별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	.2	.2	.2
남	1	831	59.0	59.0	59.2
여	2	610	49.8	49.8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77 지금 만 몇세입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2	.1	.1	.1
	18	91	6.1	6.1	6.2
	19	94	6.3	6.3	12.5
	20	101	6.8	6.8	19.3
	21	75	5.0	5.0	24.3
	22	87	5.8	5.8	30.1
	23	88	5.9	5.9	36.0
	24	87	5.8	5.8	41.8
	25	86	5.4	5.4	47.2
	26	86	5.4	5.4	52.5
	27	83	5.6	5.6	58.1
	28	79	5.3	5.3	63.4
	29	75	5.0	5.0	68.4
	30	70	4.7	4.7	73.1
	31	46	3.1	3.1	76.2
	32	63	4.2	4.2	80.4
	33	39	2.6	2.6	83.0
	34	46	2.7	2.7	85.7
	35	67	4.5	4.5	90.2
	36	41	2.7	2.7	92.9
	37	29	1.9	1.9	94.8
	38	11	2.0	2.0	97.8
	39	33	2.2	2.2	100.0
	합계	1404	100.0	100.0	
유효응답	1404	무효응답	0		
...	...	...	...		

V78 택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	.1	.1	.1
서울	1	216	14.5	14.5	14.5
부산	2	130	8.7	8.7	23.2
대구	3	67	4.5	4.5	27.7
광주	4	28	1.9	1.9	29.6
대전	5	23	1.5	1.5	31.1
전주	6	42	2.8	2.8	33.9
경기도	7	133	8.9	8.9	42.8
강원도	8	100	6.7	6.7	49.5
충북	9	70	4.7	4.7	54.2
충남	10	105	7.0	7.0	61.2
전북	11	100	6.7	6.7	67.9
전남	12	152	10.2	10.2	78.1
경북	13	169	11.3	11.3	89.4
경남	14	150	10.0	10.0	99.5
제주도	15	3	.2	.2	99.7
외국	16	5	.3	.3	100.0
합계		1494	100.0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79 혼인유무는?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	.2	.2	.2
미혼	1	984	68.5	68.5	68.7
결혼	2	581	38.9	38.9	99.6
기타	3	6	.4	.4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80 확률분포

오차 범위	오차 범위	빈도	확률	분포	확률
0.00-0.01	0.00	10	1.0	0.00	0.00
0.01-0.02	0.01	20	2.0	0.01	0.01
0.02-0.03	0.02	104	10.4	0.02	0.02
0.03-0.04	0.03	622	62.2	0.03	0.03
0.04-0.05	0.04	605	60.5	0.04	0.04
0.05-0.06	0.05	97	9.7	0.05	0.05
0.06-0.07	0.06				
0.07-0.08	0.07				
0.08-0.09	0.08				
0.09-0.10	0.09				
0.10-0.11	0.10				
0.11-0.12	0.11				
0.12-0.13	0.12				
0.13-0.14	0.13				
0.14-0.15	0.14				
0.15-0.16	0.15				
0.16-0.17	0.16				
0.17-0.18	0.17				
0.18-0.19	0.18				
0.19-0.20	0.19				
0.20-0.21	0.20				
0.21-0.22	0.21				
0.22-0.23	0.22				
0.23-0.24	0.23				
0.24-0.25	0.24				
0.25-0.26	0.25				
0.26-0.27	0.26				
0.27-0.28	0.27				
0.28-0.29	0.28				
0.29-0.30	0.29				
0.30-0.31	0.30				
0.31-0.32	0.31				
0.32-0.33	0.32				
0.33-0.34	0.33				
0.34-0.35	0.34				
0.35-0.36	0.35				
0.36-0.37	0.36				
0.37-0.38	0.37				
0.38-0.39	0.38				
0.39-0.40	0.39				
0.40-0.41	0.40				
0.41-0.42	0.41				
0.42-0.43	0.42				
0.43-0.44	0.43				
0.44-0.45	0.44				
0.45-0.46	0.45				
0.46-0.47	0.46				
0.47-0.48	0.47				
0.48-0.49	0.48				
0.49-0.50	0.49				
0.50-0.51	0.50				
0.51-0.52	0.51				
0.52-0.53	0.52				
0.53-0.54	0.53				
0.54-0.55	0.54				
0.55-0.56	0.55				
0.56-0.57	0.56				
0.57-0.58	0.57				
0.58-0.59	0.58				
0.59-0.60	0.59				
0.60-0.61	0.60				
0.61-0.62	0.61				
0.62-0.63	0.62				
0.63-0.64	0.63				
0.64-0.65	0.64				
0.65-0.66	0.65				
0.66-0.67	0.66				
0.67-0.68	0.67				
0.68-0.69	0.68				
0.69-0.70	0.69				
0.70-0.71	0.70				
0.71-0.72	0.71				
0.72-0.73	0.72				
0.73-0.74	0.73				
0.74-0.75	0.74				
0.75-0.76	0.75				
0.76-0.77	0.76				
0.77-0.78	0.77				
0.78-0.79	0.78				
0.79-0.80	0.79				
0.80-0.81	0.80				
0.81-0.82	0.81				
0.82-0.83	0.82				
0.83-0.84	0.83				
0.84-0.85	0.84				
0.85-0.86	0.85				
0.86-0.87	0.86				
0.87-0.88	0.87				
0.88-0.89	0.88				
0.89-0.90	0.89				
0.90-0.91	0.90				
0.91-0.92	0.91				
0.92-0.93	0.92				
0.93-0.94	0.93				
0.94-0.95	0.94				
0.95-0.96	0.95				
0.96-0.97	0.96				
0.97-0.98	0.97				
0.98-0.99	0.98				
0.99-1.00	0.99				
1.00-1.01	1.00				
1.01-1.02	1.01				
1.02-1.03	1.02				
1.03-1.04	1.03				
1.04-1.05	1.04				
1.05-1.06	1.05				
1.06-1.07	1.06				
1.07-1.08	1.07				
1.08-1.09	1.08				
1.09-1.10	1.09				
1.10-1.11	1.10				
1.11-1.12	1.11				
1.12-1.13	1.12				
1.13-1.14	1.13				
1.14-1.15	1.14				
1.15-1.16	1.15				
1.16-1.17	1.16				
1.17-1.18	1.17				
1.18-1.19	1.18				
1.19-1.20	1.19				
1.20-1.21	1.20				
1.21-1.22	1.21				
1.22-1.23	1.22				
1.23-1.24	1.23				
1.24-1.25	1.24				
1.25-1.26	1.25				
1.26-1.27	1.26				
1.27-1.28	1.27				
1.28-1.29	1.28				
1.29-1.30	1.29				
1.30-1.31	1.30				
1.31-1.32	1.31				
1.32-1.33	1.32				
1.33-1.34	1.33				
1.34-1.35	1.34				
1.35-1.36	1.35				
1.36-1.37	1.36				
1.37-1.38	1.37				
1.38-1.39	1.38				
1.39-1.40	1.39				
1.40-1.41	1.40				
1.41-1.42	1.41				
1.42-1.43	1.42				
1.43-1.44	1.43				
1.44-1.45	1.44				
1.45-1.46	1.45				
1.46-1.47	1.46				
1.47-1.48	1.47				
1.48-1.49	1.48				
1.49-1.50	1.49				
1.50-1.51	1.50				
1.51-1.52	1.51				
1.52-1.53	1.52				
1.53-1.54	1.53				
1.54-1.55	1.54				
1.55-1.56	1.55				
1.56-1.57	1.56				
1.57-1.58	1.57				
1.58-1.59	1.58				
1.59-1.60	1.59				
1.60-1.61	1.60				
1.61-1.62	1.61				
1.62-1.63	1.62				
1.63-1.64	1.63				
1.64-1.65	1.64				
1.65-1.66	1.65				
1.66-1.67	1.66				
1.67-1.68	1.67				
1.68-1.69	1.68				
1.69-1.70	1.69				
1.70-1.71	1.70				
1.71-1.72	1.71				
1.72-1.73	1.72				
1.73-1.74	1.73				
1.74-1.75	1.74				
1.75-1.76	1.75				
1.76-1.77	1.76				
1.77-1.78	1.77				
1.78-1.79	1.78				
1.79-1.80	1.79				
1.80-1.81	1.80				
1.81-1.82	1.81				
1.82-1.83	1.82				
1.83-1.84	1.83				
1.84-1.85	1.84				
1.85-1.86	1.85				
1.86-1.87	1.86				
1.87-1.88	1.87				
1.88-1.89	1.88				
1.89-1.90	1.89				
1.90-1.91	1.90				
1.91-1.92	1.91				
1.92-1.93	1.92				
1.93-1.94	1.93				
1.94-1.95	1.94				
1.95-1.96	1.95				
1.96-1.97	1.96				
1.97-1.98	1.97				
1.98-1.99	1.98				
1.99-2.00	1.99				
2.00-2.01	2.00				
2.01-2.02	2.01				
2.02-2.03	2.02				
2.03-2.04	2.03				
2.04-2.05	2.04				
2.05-2.06	2.05				
2.06-2.07	2.06				
2.07-2.08	2.07				
2.08-2.09	2.08				
2.09-2.10	2.09				
2.10-2.11	2.10				
2.11-2.12	2.11				
2.12-2.13	2.12				
2.13-2.14	2.13				
2.14-2.15	2.14				
2.15-2.16	2.15				
2.16-2.17	2.16				
2.17-2.18	2.17				
2.18-2.19	2.18				
2.19-2.20	2.19				
2.20-2.21	2.20				
2.21-2.22	2.21				
2.22-2.23	2.22				
2.23-2.24	2.23				
2.24-2.25	2.24				
2.25-2.26	2.25				
2.26-2.27	2.26				
2.27-2.28	2.27				
2.28-2.29	2.28				
2.29-2.30	2.29				
2.30-2.31	2.30				
2.31-2.32	2.31				
2.32-2.33	2.32				
2.33-2.34	2.33				
2.34-2.35	2.34				
2.35-2.36	2.35				
2.36-2.37	2.36				
2.37-2.38	2.37				
2.38-2.39	2.38				
2.39-2.40	2.39				
2.40-2.41	2.40				
2.41-2.42	2.41				
2.42-2.43	2.42				
2.43-2.44	2.43				
2.44-2.45	2.44				
2.45-2.46	2.45				
2.46-2.47	2.46				
2.47-2.48	2.47				
2.48-2.49	2.48				
2.49-2.50	2.49				
2.50-2.51	2.50				
2.51-2.52	2.51				
2.52-2.53	2.52				
2.53-2.54	2.53				
2.54-2.55	2.54				
2.55-2.56	2.55				
2.56-2.57	2.56				
2.57-2.58	2.57				
2.58-2.59	2.58				
2.59-2.60	2.59				
2.60-2.61	2.60				
2.61-2.62	2.61				
2.62-2.63	2.62				
2.63-2.64	2.63				
2.64-2.65	2.64				
2.65-2.66	2.65				
2.66-2.67	2.66				
2.67-2.68	2.67				
2.68-2.69	2.68				
2.69-2.70					

V82 귀하의 가게 월 총수입은?

응답내용	응답빈도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32	6.2	6.2	6.2
10만원 미만	1	74	5.0	5.0	11.1
10-30만원 미만	2	171	11.4	11.4	22.6
30-50만원 미만	3	399	26.6	26.6	49.2
50-70만원 미만	4	323	21.6	21.6	70.8
70-100만원 미만	5	259	16.9	16.9	87.8
100만원 이상	6	183	12.2	12.2	100.0
합계		1404	100.0	100.0	
유효응답	1404	무효응답	0		

V83 종고

응답내용	응답빈도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1	.7	.7	.7
무효응답	1	418	11.4	11.4	12.1
기타	2	481	26.6	26.6	38.6
기타	3	139	8.7	8.7	47.3
기타	4	281	18.8	18.8	66.1
기타	5	52	3.5	3.5	69.6
합계		1404	100.0	100.0	
유효응답	1404	무효응답	0		

V84 생활수준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2	.1	.1	.1
아주 잘사는 편이다	1	16	1.1	1.1	1.2
중간보다 잘사는 편이다	2	115	7.7	7.7	8.9
중간 정도이다	3	793	53.1	53.1	62.0
중간보다 못사는 편이다	4	491	32.9	32.9	94.9
아주 못사는 편이다	5	77	5.2	5.2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V85 정치성향

응답내용	응답번호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응답	0	11	.7	.7	.7
보수적	1	96	6.4	6.4	7.2
	2	103	12.9	12.9	20.1
중도	3	682	45.6	45.6	65.7
	4	342	22.9	22.9	88.6
진보적	5	170	11.4	11.4	100.0
합계		1494	100.0	100.0	
유효응답	1494	무효응답	0		

부록 Ⅲ

표본 집락 목록

서울

종로구	교남동	1동
종로구	충무로	3동
용산구	한강	2동
성동구	자양	2동
	성수	2가 2동
동대문구	청량	1동
	전농	1동
중랑구	상봉	1동
성북구	장위	1동
	정릉	3동
도봉구	미아	8동
	수유	2동
노원구	월계	1동
	상계	2동
은평구	진관	2동
	역촌	1동
서대문구	홍제	4동
마포구	아현	2동
양천구	신설	2동
	목동	3동
강서구	화곡	3동
	공천	2동
구로구	공천	2동
	시흥	4동
	오류	2동
	구로	5동
영등포구	신길	3동
	도림	1동
동작구	대방	2동
관악구	남현	1동
	봉천	본동
서초구	반포	1동
강남구	역삼	2동
	삼성	1동
	동남	2동
송파구	석촌	2동
강동구	명동	1동
	둔촌	2동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보수 2동
서대신 1동
신선 1동
부전 1동
개금 1동
사직 2동
명륜 1동
남천 2동
남천 1동
만덕 2동
반송 1동
괴정 5동
호동 1동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북성동
성평동
상이동
내방 1동
대명 2동
칠성 2가동
수성 4가동
성당 1동

인천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북구
서구

내경동
금창동
주안동
논현동
부평 2동
가좌 2동

광주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동명동 1동
동효동 1동
동운동 1동
산향동 1동

대전

서구
중구

갈마동 1동
용두동 1동
대흥동 1동
신성동 1동
화암동 1동

유성구

경기

의정부시
부천시

가릉동 1동
역곡동 2동

성남시

심곡동 1동
태평동 1동

수원시

단의동 1동
세류동 1동

안산시

팔달동 1동
관동동 1동

광명시

광명동 1동
광안동 7동

안양시

안양동 1면
일죽동 1면

안성군

수동면 1면
양도면 1면

남양주군

강촌면 1면
강내면 1면

강화군

고촌면 1면
고포면 1면

여주군

대월면 1면
우천면 1면

포천군

김포군

광주군

이천군

양평군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양양군
철원군

동화동
산동
양동
강릉면
영월면
양양면
송악면

충북

청주시
제천시
음성군
제원군

충교동
교천동
천안면
소학동
송학동

충남

은양시
보령군
천안시
홍성군
공주군
논산군

곡북동
천북면
청수동
홍인면
이인면
벌곡면

전북

전주시
익산시
정주시
익산군
장수군
옥구군
순창군

종로동
인남동
남중동
내삼동
천기면
천성면
미성면
풍산면

전남

목포시
무안군

죽교동
달성동
성동
봉탄면

보성군
당진군
나주군
고성군
영광군

면동면
천안면
평안면
서대면
목대면

경북

포항시

안동시

점촌시

성주군

안동군

달성군

상주군

의성군

동대동
상대동
용강동
강현동
충일동
홍포동
옥공동
의흥동
옥산동

경남

진해시

마산시

울산시

진주시

충무시

울주군

밀양군

창원시

대곡동
회성동
자산동
자평동
반곡동
선암동
상대동
무전동
서생면
두서면
무안면
삼랑진읍

가음정동

